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손성영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on the Proverbs of
Family Relationship of Korean and Chinese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손성영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국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손성영

손성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0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사	2
1.3. 연구 내용 및 방법	4
2. 속담의 개념 및 특징	5
2.1. 속담의 개념	5
2.2. 속담의 기능	9
2.3. 속담의 특성	12
3.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분석 ..	18
3.1. 부부 관계	18
3.1.1. 남편의 입장	21
3.1.2. 아내의 입장	28
3.1.3. 첩에 관한 속담	33
3.2. 부모 자식 관계	36
3.2.1. 부모의 입장	37
3.2.2. 자식의 입장	51

3.2.3. 계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	58
3.2.4.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61
3.3. 고부 관계	63
3.3.1. 시어머니의 입장	64
3.3.2. 며느리의 입장	68
3.4. 기타 가족 관계	73
3.4.1. 형제자매에 관한 속담	74
3.4.2. 며느리와 시누이에 관한 속담	77
3.4.3. 동서 관계에 관한 속담	79
3.4.4. 사위와 장모에 관한 속담	80
4. 결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the Proverbs of Family Relationship of Korean and Chinese

Sun Chengying

Advisor: Prof. G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iterally the proverb is a speech of folk expression used in daily life. It is popular heritage expressed in a figurative sense and handed down by word of mouth rather than in writing. We use a lot of proverbs in our daily life. By using proverbs properly, we can deliver our thought clearly. Because the proverb is the experiential truth which was created naturally with a long history, there are many things like a serious lesson, a philosophical view of life, a keen satire and refined humor. Therefore it reflects folk culture, the custom, the religion and the philosophy of living.

Because Korea and China are contiguous with each other, two countries have interacted continuously in the field of culture, economy, politics and so on. At present there are too many Chinese to study Korean in Korea. Moreover the Korean language lectures are established at the Universities in China.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to learn a culture pattern when we study a foreign language, we better learn the proverbs. Another reason is that the proverbs include the culture such as its own folk-ways and custom. Since Confucian tradition has been at the heart of the lives of Korean and Chinese, both people think family relationships are important. So a comparative study of proverbs about

Family Relationships is essentia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a comparison analysis of difference among these proverbs about family relationships. As aforementioned, the proverb includes the culture as well as the expression. As the Korean proverb is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 so the Chinese proverb is difficult for Korean learner. Above all it is because of mutual incomprehension about the culture of the country both countries have used same Chinese Characters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Nevertheless the learners sometimes could not grasp the exact meaning of the proverb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 For these reasons, I made a study it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written about concepts, features, contents and the expressive aspects of the Korean proverbs in response to the Chinese proverbs.

Second, after researching the meaning of family in the proverbs, the scopes in the research were assorted into five groups: a conjugal relation, a parent-child relation, a fraternal relation, a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 and other relations. 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Korean proverbs in response to the Chinese proverbs.

Third, after describing the causes of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bout the proverbs between both countrie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were researched.

Despite the remote past because there is the ancestor's culture: institution, custom, attitude and so on. We can get a sense of our ancestor's wisdom and life in the proverbs. due to very complex word structure and vocabulary used to only in the country. It has not been translated well from time to time. But it is a period of brisk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n and China. There fore now is the time to research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erbs between both countries.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는 인간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창조와 전승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지만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제2언어의 습득¹⁾은 단순히 도구적인 목적으로 습득하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2문화의 습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큰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 부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이며 그 언어는 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며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속에는 그 언어가 생성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그 사회의 모든 문화가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언어에 대해 다룬다는 것은 그 음성이나 문자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관계와 인간관계 등의 문제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속담의 적절한 사용으로 글의 내용과 표현이 한층 더 강한 힘과 생기를 얻고 사상은 보다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속담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된 체험적 진리이므로 그 속에는 실용적이면서도 엄숙한 교훈이 있고, 달관한 인생관이 엿보이며, 날카로운 풍자와 더불어 구수한 유머가 있다. 그래서 속담에는 겨레의 풍속, 관습, 신앙, 생활 철학 등이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속담은 우리 서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때로는 사고 판단의 척도로서 삶의 길을 인도하기도 한다(김문창, 1974:97).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끊임없이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류를 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

1) 백현숙(1992)에서는 제2언어를 모국어 아닌 두 번째로 습득된 언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연적 제2언어 습득 연구는 60년대 말 내지 7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70년대 중반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면서 자연적 제2언어 습득은 언어습득 연구와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어습득 유행으로 간주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수²⁾가 많을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언어만 익히는 것보다 그 언어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속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에는 그 사회의 축적된 풍속, 관습 등 생활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양국은 유교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아 예로부터 가족 관계를 중시하였으므로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의 대조 교육은 더욱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속담과 중국 속담 가운데에서 특히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을 대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속담은 단순히 외형적인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는 중국 속담에 대한 이해가 더디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 역시 같은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비슷한 속담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이 오히려 더욱 더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양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사

속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갈수록 연구관점과 방향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조선 후기부터 속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대에 들어 이루어진 한국 속담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속담의 수집과 정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연

2) 한국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2008년 말까지 총 외국인 유학생 수의 72%인 29,366 명을 기록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자료에 기초함.) (<http://www.immigration.go.kr>).

구가 시작된 것은 이기문(1962)의 『속담사전』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이충섭(1969)에서는 일반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한국 속담의 우수성을 밝힘과 동시에 속담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김종택(1967)에서는 속담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 가치를 한 단계 높였고, 이을환(1971)에서는 속담의 문법 구조적 형태를 체계화 하여 기술하였다.

의미론적 연구는 김도환(1975)의 발표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사와 자연현상에 관한 한국 속담 7,300개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적인 의도, 세인들의 관심 대상, 당위 의식의 관점에서 속담을 연구하였다. 심재기(1982)에서는 속담의 개념, 구조, 의미기능, 화용론적 민속자료서의 특성을 살피면서 화용론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지만(1986)에서는 속담의 의미기능을 교화적, 풍자적 지식의 전달적 기능으로 나누어 의미 기능의 다양성을 밝혔다.

한국과 외국의 속담의 대조 연구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석현(1974)은 한국과 독일의 속담을 다루었고, 이규재(1980)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모와 자식 간의 속담을 기술하였으며, 그 밖에 이을순(1982), 김주광(1993), 장정숙(1995), 조병기(2001) 등은 한국과 일본의 속담을 대조하고 논술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속담의 대조 연구는 김윤수(2001)에서는 중국의 개인생활과 관련된 속담, 사회생활과 관련된 속담 등 사회언어학적 특징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속담 교육 방법, 그리고 속담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육훈(1996)에서는 주로 양국 속담의 표현 형식과 의미내용의 유사점과 대조하였다. 전현숙(2001)에서는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같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사자성어의 이질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풍요(2005)에서는 주로 양국의 여성 속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여성 속담의 사회적, 화용적, 교육적 기능을 나누어, 여성 속담을 통한 문화 교육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가족 관계 속담에 대한 연구 또는 그에 대한 대조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양국의 가족 관계 속담에 대한 대조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된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을 대조·분석을 통하여 속담 속에 나타난 두 나라 간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 연구 중에서 속담 특히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을 대조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은 단순한 언어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언중들의 삶의 내용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함으로써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속담이 축약된 구조를 갖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학습자들의 상대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찾아 밝힘으로써 양국의 속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조사를 하였다.

2장에서는 한·중 속담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고, 속담에 대응되는 개념을 갖는 말들을 찾아 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범주를 부부 관계에 관한 속담,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한 속담, 고부 관계에 관한 속담 및 기타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으로 규정한 후 각각 관계에 대응되는 한·중 양국의 속담을 제시하며, 대조 연구를 통해 양국의 속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2, 3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속담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인 양국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속담에는 선인들의 문화, 즉 당시의 시대상과 제도, 생활관습, 사고방식 등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속담을 통하여 오랜 과거이지만 살아있으며 흥미진진한 선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각 나라에서만 쓰이고 번역되기 어려운 어휘가 존재하는 특성상 속담이 상대 나라의 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중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대중문화 부문에서 많은 교류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양국 속담에 관한 대조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류의 방법으로서 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속담의 개념 및 특징

2.1. 속담의 개념

속담은 인류의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진리요, 민중의 슬기로운 실용적 교훈으로서 대개 간결한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속담은 오랜 세월을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성립된 그 민족의 독특한 예지와 정서와 심리도 함께 포함된 민중의 것이다.

최창렬(1999)에서는 속담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고, 넓은 의미의 속담은 서민들의 생활에서 만들어진 구비전승(口碑傳承)의 언어와 성현들이나 작가, 지식인들의 명언이나 고서 등에서 인용한 것은 물론, 오늘날 일정한 형태 속에 향간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형태의 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³⁾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속담은 교훈, 기지, 상상, 경계, 비유, 풍자 등을 바탕으로 통속적이고 진솔함이 깃든 구비전승의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언중(言衆)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에서 우러난 진리를 간결하고 평범한 은유적 표현의 관용어라고 정의하였다.

속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속담의 정의를 사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별 속담의 정의

사전 명	정의
『대국어사전』 (이승녕 외, 1984:1165)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진 격언(格言).
『새 우리말 큰사전』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3) 송재선(1986)에서는 비록 하나의 형용사라 할지라도 일정한 형을 구비하게 되면 언제나 어떤 종류의 사물을 형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것을 애용하게 되면 이것을 속담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기철.신용철, 1985:1937)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져서 온 민족에게 공통된 격언.
『새 한글 사전』 (한글학회, 1986:637)	세상에 흔히 돌아다니는 쉬운 격언.
『우리말 큰사전』 (한국학회, 1997:2394)	민간에 전해오는 쉬운 격언. 세언(世諺), 속설(俗說), 속언(俗諺), 언속(諺俗), 이어(俚語), 이언(俚諺).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이희승, 1998:1526)	옛적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
『표준국어대사전』 (국어국립연구원, 1999:3562)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箴言). 언속(諺俗).
『동아 새 국어사전』 (이기문, 2000:1313)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민간 격언
『국어학 전용어 사전』 (이강언 외3인, 2000:399)	비유의 방법으로 교훈, 풍자를 나타내는 관용어.

이렇듯 속담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좁은 의미의 속담에 대한 정의를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속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언어’(諺語), ‘속어’(俗語)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의 고전인 『역경』(易經)에서 인용된 바에 의하면 언어(諺語)는 이미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써어 있다. 『역경』에는 “不恒其德, 或承之羞。”⁴⁾라는 언어(諺語)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중국의 선인들은 언어(諺語)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없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속담(俗談)이 곧 언어(諺語)’는 아니다. 물론 언어(諺語)가 통속적이고 간결하며 생동감 있는 운어(韻語) 혹은 단구(短句)

4) 이는 사람에게 몇몇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다. 밀 하든지 향심, 즉 좋은 품성을 오랫동안 지닐 수 없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로, 보통 구어 형식으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일반 사람들의 실제 생활 경험이나 감상을 표현한 일종의 정형화된 말⁵⁾이라 정의되기에 한국말의 속담과 그 개념에 있어서 비교적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속담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의 속담에 해당하는 말은 李榕默 編著(1998 : 2210)에서는 중국어로 속어(俗語)란 용어로 번역된다. 그런데 이 속담에 대해서 중국학자들은 “속어란 곧 언어(諺語)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혈후어(歇後語)⁶⁾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격언과 성어(成語)는 속어와 유사하기는 하나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구별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나뉘지지는 않는다.⁷⁾”고 하기도 하며, 혹자는 ‘협어의 속어’는 입으로 유행하는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짧은 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언어(諺語), 성어, 격언, 혈후어 등이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의 속어’에는 언어(諺語), 성어, 격언, 혈후어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⁸⁾ 그렇다면 언어(諺語)는 결국 속담에 포함되는 언어형식 중 하나인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담을 일차적으로 ‘광의의 속어’ 개념으로 간주하고 이후 사상, 내용면과 언어학적(言語學的)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속담의 특성을 중심으로 속어이자 동시에 중국어인 속어⁹⁾의 의미를 포함하는 언어(諺

5) 武占坤,馬國凡 著(1998 : 3)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諺語是通俗間諺，生動活發的短句，它經常以口語的形式，在人民中間廣泛之沿用和流傳，是人民群眾表現實際生活經驗或感受的一種‘現成話’。

(언어는 통속적이면서도 간결한 형식으로, 생동적이고 활발한 단구로 되어있다. 그것은 항상 구어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전해 내려왔으며, 대중의 실제 생활 속의 경험 혹은 느낌을 표현한 일종의 ‘만들어진 말’이다.)

6) 저갈진(2005)에서는 혈후어란 속어의 일종으로,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정어구에 중심이 있다. 앞부분은 ‘인자(引子)’라고 하여 수수께끼의 문체와 같은 것이고, 뒷부분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그 답과 같은 것이다. 혈후어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비유로, 앞부분이 비유이고, 뒷부분이 설명으로 된 것이다. 둘째, 이중성으로, 뒷부분이 같은 음이나 유사음의 성분을 빌려 앞부분과 연관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7) 呂叔湘(1997 : 序i-3)에서 재인용.

8) 陶陽(1988 : 62)에서 재인용.

9) 中国社会科学院研究室編(1977:1145)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熟語是指語言中定型的詞組或句子，使用時一般不能任意改變其組織，包括成語，諺語，格言，歇後語等。熟語中有很多屬於勞動人民鬥爭經驗的總結或對自然規律的認識。有一些願意消極的熟語在後人沿用的過程中給其賦予了新的含義。可以古為今用。

(속어는 언어 가운데의 고정된 형태의 어구로서,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조직을 임의로 바

語), 성어, 격언, 헐후어 등을 대조, 연구하여 ‘중국 속담’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사상, 내용면에서 언어(諺語)는 일반 군중들의 생활 경험의 총체로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만물을 다 포괄하며 대다수의 일반 군중들이 만들어낸 집단 창조물이고, 헐후어 또한 언중들이 즐겨 말하고 사용하는 ‘현성화’(現成話)로 해학과 유머, 풍자와 익살을 담고 있는 가벼운 일상적인 말이다. 따라서 언어(諺語)와 헐후어는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속담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성어는 언어(諺語), 헐후어와 함께 현성화로서 언어(諺語)가 정결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표현력 또한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성어의 대부분은 고대의 우화(寓話)¹⁰⁾ 내지는 역사고사(歷史故事) 혹은 고서(古書)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으며 창조 및 사용계층에 있어서도 일반 서민보다는 지식층에 해당하는 문인들에 의해서 가공되고 다듬어진 말이기 때문에 속담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격언은 사회적 풍자보다는 훈계적인 내용이 많은 연유로 사람들의 입신과 처세의 도덕규범이나 행동 준칙이 되고 있는 언어 형식 중 하나이며, 대다수가 고대 사상이 내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창조해낸 말들이다. 따라서 성어와 마찬가지로 민중들에 의해서 창작된 속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어학적(言語學的) 측면에서 언어(諺語)는 그 품격이 정중, 단정한 반면 헐후어는 가볍고 유머러스하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언어(諺語)와 헐후어는 모두 통속적이고 평범한 민중 언어(言語)로서 생동, 발랄, 참신하며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언어(諺語)의 형식면에서 일반적인 속담의 필수조건이 되는 구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어와 격언은 정형성의 정도에 있어서 언어(諺語)나 헐후어에 비해 정형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관용어, 성어, 언어, 격언 등이 포함된다. 속어 중에는 민중의 투쟁경험의 총결 또는 자연규칙에 대한 인식에 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원래 의미가 소극적이었던 몇몇의 속어들은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던 과정 중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서, 옛 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航之(2002)에서는 우화를 “인간 이외의 동물 또는 식물에 인간의 생활 감정을 부여하여 사람과 꼭 같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빛는 유머 속에 교훈을 나타내려고 하는 설화.”라고 정의하였다.

성이 강한 편인데, 특히 격언은 일정한 법식을 가진 간결하고도 뜻이 완벽한 정형어구이고 성어 역시 사자(四字)를 주요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그 형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반면, 언어(諺語)와 혈후어는 현성화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 그 기본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단어나 어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성어와 격언은 품격이 단아하고 장중하여 예스러우며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들로 인해 둘 다 속담이 될 수 없다.

작문 기능상 언어(諺語), 혈후어, 격언은 대부분의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는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성어는 일반적인 개념만을 표현하는 문장 성분만 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 일반적인 속담의 개념과 특성을 중심으로 ‘광의의 속담’이자 ‘중국어의 속어’인 언어(諺語), 혈후어, 성어, 격언 등을 비교한 결과, 사상과 내용면에서 대중들의 오랜 생활 경험과 일상적인 삶에 그 뿌리를 두면서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며, 언어학적 측면에서 간결, 통속, 생동감 있는 독립적인 문장으로 정형성과 고정성을 형식적 특성으로 하는 언중들 사이에 구비전승(口碑傳承)되고 있는 언어(諺語)와 혈후어가 한국 속담의 개념에 대응되는 ‘중국 속담’이라 결론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국 속담은 ‘언어(諺語)+혈후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혈후어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한국 속담과 중국 속담을 대조·분석할 때 혈후어의 구성 특성상 한국 속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2.2. 속담의 기능

속담은 화자가 자신의 표현 의도를 감화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용적인 비유 표현이다. 그러므로 속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언외(言外) 의미로서의 관용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속담은 비유를 바탕으로 하고 표면 의미에서 도출된 기본 의미로 해석되는 것만은 틀림없으나, 거기에 화용론적인 부차 기

능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속담은 비로소 속담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종택(1967:63)에서는 속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속담이란 언중이 낳은 생활의 지혜라는 말 속에 속담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긴밀한 구조, 기능적인 의미 전달이 대중 사이에서 행해지는데 이것은 속담의 구조적인 성격에 집약되는 것이다. 속담 기능은 추상 관념을 구체적인 사실로, 고도의 논리를 예리한 직감으로, 평범한 설명을 돌발적인 상징으로 드러냄으로써 해서 쾌감을 얻고 절실한 표현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적인 의미 전달이란 서술적인 개념 전달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속담은 구조를 갖추고 기능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실용성과 대중성을 지닌다. 실제 담화 언어활동에 있어서 말의 의미는 문장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 구조를 이룬다. 그런데 속담의 구조는 일반적인 언어와는 구별되는 문맥적 가치를 가지고 쓰이는데 문맥적 가치가 속담의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속담의 용법은 단순한 의미전달의 서술을 축약해서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 속담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밭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은 ‘말을 조심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말을 조심하라’는 단순한 서술이지만 앞의 두 표현은 평범한 설명을 돌발적인 상징으로 드러냄으로써 쾌감을 얻고 절실한 표현 효과를 내는 것이다.

속담의 언어 기능은 그 속에 동원된 언어 재료와 주제 의미와의 관계에 따라 상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제 의미가 동원된 언어 재료의 표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와 주제 의미가 언어 재료 속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그 언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설명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이다.

속담의 상징적 기능은 속담 내에 들어 있는 단어가 속담의 의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지 않는 경우다. 이때 속담의 주제 의미는 그 속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낱말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구

조를 이룰 때 비로소 상징적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념에 의한 재료의 산문적인 해석으로서는 주제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한국 속담에서는 일이 많은 사람이나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걱정 벼를 날이 없다는 의미가 드러나므로 이 속담이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중국 속담 “手掌手背都是肉, 十個指頭個個疼。”¹¹⁾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으로 자식을 비유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므로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다음으로, 속담의 서술적 기능은 속담의 의미가 속담 내의 단어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그 속담을 읽는 누구라도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를 서술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담이 완전히 서술적인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속담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단순한 서술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라는 다른 하나의 서술과 결합해서야 그 구조는 극히 기능화 되고 전체는 하나의 속담이 되는 것이다. 이 속담에서 속담의 의미는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에 드러나 있으며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는 보조적인 것이다. 이때 주제 의미는 문맥 속에 그대로 서술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서술의 형식이 아니고 문장의 전후 구조에 의하여 기능화된 서술이다. 따라서 속담의 주 의미는 두 절의 논리적인 해석으로 추출해 낼 수 있으므로 이 속담은 서술적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다.

중국 속담에서도 이러한 속담의 서술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莊稼是人家的好, 孩子是自家的好。”¹²⁾에서도 자기 자식이 좋다는 주제 의미는 그대로 서술되고 있으며, 농작물은 남의 농작물이 좋다는 것은 보조적인 서술로서 주제 의미와 함께 한 속담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 주제 의미와 보조적인 의미를 정한 것이 아니고, 두 절의 논리적인 해석으로 추출해 내는 것이며, 이 속담 또한 서술적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틀림없다.

11) 손등과 손바닥이 모두 살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뜻.

12) 농작물은 남의 농작물이 좋고,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좋다는 말, 이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다.

2.3. 속담의 특성

속담은 생활 체험에서 얻은 보편적 진리와 지혜의 산물이므로 속담을 통해 인생에 대한 가르침과 처세에 대한 방법 등을 깨닫게 되며, 단순한 비유 속에 함축된 의미가 포함되어 풍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속담은 각 민족, 각 나라의 우수한 문학이며, 생활 철학이다. 이것은 바로 그 민족이나 그 나라 사람의 독특한 정서, 지혜, 심리,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사엽(1982)에서는 “속담은 비록 형태상으로는 10자 또는 20자 미만의 짧은 문구이지만, 인간의 생활과 영원히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속담의 특성을 지적한 이종철(2003)의 견해를 인용하면 속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¹³⁾

첫째, 속담은 수사상 비유 표현으로 되어 있다. 비유 표현은 본의(本意)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본의와 유사성이 있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비유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는 매체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그 유사성을 직설적으로 바꿔서 풀어쓰기한 표현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뱀새가 황새를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 이 속담의 기본 의미를 “남이 한다고 제 힘에 겨운 일을 하면 도리어 낭패를 당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뱀새’, ‘황새’의 이미지 대응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정서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속담은 대부분 농경 사회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속담에서 매체로 쓰인 어휘들은 농경 사회를 반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국 속담에서도 비유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속담 “老燕含泥天天累, 翅膀硬了各自飛。”¹⁴⁾에서 보듯이, 표면적으로 볼 때, 늙은 제비와 자식의 관계를

13) 학자에 따라 속담의 특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최창렬(199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첫째. 속담은 그것이 생성된 사회의 소산물이다.
- 둘째. 그것이 생성된 지역의 향토성을 나타낸다.
- 셋째. 그것이 생성된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낸다.
- 넷째. 언중들의 생활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 다섯째.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여섯째.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훨씬 부드럽게 해준다.

14) 늙은 제비가 흙을 물어오기 때문에 고생하며, 자식은 날개가 단단해지면 떠난다는 뜻.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늙은 제비는 사람의 부모를 비유하고 있으며, 자식은 성인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자신만 신경을 쓰고, 부모의 은혜를 잊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속담은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를 화용론적으로 지닌다. 속담을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은 속담의 기본 의미만 전달하기 위하여 속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속담은 발화 상황 속에서 기본 의미, 매체의 이미지 이외에도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를 함축 의미로 지닌다.

예를 들어, “뱀새가 황새를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은 상대방에게 “남이 한다고 당신의 힘에 겨운 일을 하면 실패하니까 그 일을 하지 마라.”라는 교훈적 의미 또는 “남이 한다고 당신의 힘에 겨운 일을 하여서 실패한 것이다.”라는 풍자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중국 속담도 마찬가지로 “閉門造車，一門不摸。”¹⁵⁾라는 속담은 상대방에게 “객관 사실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하면 실패하니까, 주관적으로 하지마라.”라는 교훈적 의미 또는 “객관 사실을 무시하고서, 주관적으로 하면 꼭 실패할 것이다.”라는 풍자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속담의 이러한 화용론적 의미는 속담의 기본 의미와 상황이 전제가 되어 추리되는 의미이다.

속담의 기본 의미는 대부분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지혜를 지닌다. 그리고 속담의 기본 의미는 보편적 진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기본 의미가 반의 관계에 있는 속담들이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속담과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은 그 기본 의미가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각각 쓰이는 상황이 다르므로 청자는 ‘어떤 의미에서 화자가 말을 하는가?’하는 발화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셋째, 속담은 외형 구조상 조화를 지닌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心用則靈，不用則滯。”¹⁶⁾, “明保曹操，暗保劉備。”¹⁷⁾등에서 보듯이, 속담 중 상당수가 전통 시가의 기본 음수율인 4음절의 반복으로 구

15) 문을 닫고 차를 만들면, 한 가지 기술조차도 얻을 수 없다.

16) 마음을 쓰면 통하고, 안 쓰면 막힌다는 뜻.

17) 표면적으로 조조를 옹호하고, 실제로 유비를 옹호한다는 뜻으로, 사람의 겉모습과 마음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비유하고 있다.

성되어 있다. 복합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한국 속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맞이다.” 및 중국 속담 “人爭一口氣, 佛爭一炷香.”¹⁸⁾, “人往高處走, 水往低處流.”¹⁹⁾등에서는 대구법이 쓰여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에서 ‘탓’이 반복되고, “一年之計在于春, 一天之計在于晨.”²⁰⁾에서 “계”가 반복되고, “疑人勿用, 用人勿疑.”²¹⁾에서 “疑人勿用”의 순서를 바꿔어서 반복 되듯이 음절이나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속담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외형 구조상의 조화는 속담이 민중들 사이에서 음성 언어로 사용되었고, 음성 언어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넷째, 속담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많다. 속담의 기본 의미는 동일한데 형태가 다른 속담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본 의미를 표현하는 속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ㄱ. 산에 가야 뱀을 잡지.

ㄴ. 서울에 가야 과거에 급제하지.

ㄷ. 눈을 떠야 별을 보지.

ㄹ.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ㅁ. 산에 가야 꿩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ㅂ. 잠을 자야 꿈을 꾸지.

ㅅ. 입을 보아야 아이를 낳지.

ㅇ. 죽어 보아야 저승을 알지.

ㅈ.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

중국 속담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본 의미를 표현하는 속담들이 있는데, 한국 속담은 “...을/를 해야 ...이 이

18) 사람은 기에 의해서 살고, 부처님은 향에 의해서 산다는 뜻.

19)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뜻.

20)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는 뜻.

21) 의심스러운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고, 쓴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조건에 있는 반면에, 중국 속담은 주로 “...을/를 하지 않으면, ...을 이루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아래 그 예들이다.

(2)ㄱ. 不愛護牲口，別想吃肥肉。

(가축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비곗살 먹을 생각하지 마라.)

ㄴ. 不愛惜乳牛，別想吃奶油。

(젖소를 잘 보살피지 않으면, 크림 먹을 생각하지 마라.)

ㄷ. 不采百花，難釀好蜜。

(많은 꽃을 따지 않으면, 좋은 꿀을 만들기 힘들다.)

ㄹ. 不操風帆，不會行船。

(돛을 올릴 줄 모르면, 배를 조종할 수 없다.)

ㅁ. 不播種子不長苗。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묘목이 나올 수 없다.)

ㅂ. 不播種收不到五谷。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오곡을 거둘 수 없다.)

위와 같이, 유의 관계에 있는 속담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는, 속담이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응되는 이미지와 그에 맞는 단어가 다양하게 존재 하며, 구어로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화 상황을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공유하므로, 화자는 발화 상황에 적절하게 비유 표현의 매체를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속담에 쓰인 어휘는 비속어가 많다. 한국과 중국 속담에 자주 등장 하는 어휘에는 ‘개’(狗)라는 단어가 많이 있으며, ‘개’(狗)와 합성어를 이룬 단어들도 많다. 한국 속담에서는 ‘개가죽, 개고기, 개구멍, 개꼬리, 개대가리, 개똥, 개자식, 개팔자’ 등을 들 수 있고, 중국 속담에서도 “狗肉, 狗洞, 狗窩, 狗頭, 狗尾巴, 狗屎, 狗崽子”²²⁾ 등이 있다. 그리고 ‘똥’(屎)이라는 단어 역시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속담은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므로 민중들이 자주 접하는 사물의 어휘가 선택되기 쉽다는

22) 순서대로 ‘개고기’, ‘개구멍’, ‘개집’, ‘개대가리’, ‘개꼬리’, ‘개자식’의 뜻이다.

것, 그리고 속담은 관련된 당사자를 비판하는 경우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비속어가 선택되기 쉽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화자는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높거나 대등한 경우에 속담을 주로 사용하고, 청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속담은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매체의 이미지도 함께 전달되는데, 매체로 쓰인 비속어로 말미암아 부정적 정서가 더욱 강하게 전달된다.

여섯째, 속담은 발화 상황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 유의 관계에 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이 현상은 속담이 실제로 발화 현장에서 쓰일 때에 자주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변형되어 쓰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속담에 쓰인 어휘들이 주로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것이라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붓짐 내라 한다.”라는 속담에서 ‘붓짐’이 가리키는 지시물을 요즈음 보기 어렵고 그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붓짐’이란 단어는 그것과 거의 유의 관계에 있으며 요즈음도 종종 쓰이고 있는 ‘보따리’로 대치되거나 또는 ‘붓짐’의 기능을 현재 대신하는 ‘가방’으로 대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속담의 기본 의미가 지니는 교훈성은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의 기본 의미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로 형태가 바뀌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속담에 쓰인 많은 비속어들이 현대 언어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속담은 ‘개’ 또는 ‘똥’이라는 비속어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속담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이 속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개’와 ‘똥’ 대신에 대명사 ‘뉘’로 대체하여 “뉘 눈에는 뉘만 보인다더니”와 같이 ‘개’와 ‘똥’이 환기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 기본 의미와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속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

부분이어서 언중이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속담의 기본 의미는 기억하나 언어 형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을 자신이 잘 아는 유의적 표현으로 대치하는 등의 방법을 탐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잔치에 감 뇌라 배 뇌라 한다.’라는 속담에서 ‘감’과 ‘배’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 맥락상 유의적 표현인 ‘밤’과 ‘대추’로 각각 대체하여 ‘남의 잔치에 밤 뇌라 대추 뇌라 한다.’라고 사용하여도 속담의 기본 의미는 동일하게 전달된다.

마지막, 속담은 구어에서 주로 쓰인다. 말을 주고받는 중 속담을 사용하다 보면 원래의 형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 사전을 찾아보는 등의 확인 작업을 통하여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말을 주고받다가 음운 상 유사한 다른 말로 청각상의 착각을 일으켜 어휘상으로 또는 통사 상으로 엉뚱한 다른 형태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속담의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형태상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억지로 질 받기.”에서 ‘억지로’라는 형태변화는 “엎드려 질 받기.”라는 속담 속의 ‘엎드려’와 음성형태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분석

가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환경이며 체계이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부, 부모,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이다.”라고 했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게 시대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기문(2000)에서는 가족²³⁾을 “혈연과 혼인 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였다. 즉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녀 관계와 혈연을 공유하는 형제자매 관계, 결혼으로 결합된 부부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확대되어 고부 관계, 장모와 사위, 조부모와 손자, 계부모와 의붓자식, 며느리와 시누이, 동서간의 관계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기타 가족을 중심으로 한중 속담을 대조하기로 한다.

3.1. 부부 관계

부부 관계는 사회학, 인류학, 법학, 심리학, 정신 의학, 사회사업학, 가족 치료학, 가족 관계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에서 “人倫有五, 夫婦爲主。”²⁴⁾, “大禮三千, 婚姻最重。”²⁵⁾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부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

23) 김익균(2008:13)에서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4) 오륜 중에서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삼강오륜)

25) 삼 천 개의 축제 중에서 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

관계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결합을 통해서 부부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상호 보완적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부부는 결혼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로서 지위의 획득 및 역할을 갖는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얼마나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이 좌우된다.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은 개인의 행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통적으로 부부 간의 역할은 대개 남편이 생계를 부양하고 아내가 가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부 간의 역할에 대해 Parsons²⁶⁾는 남편의 역할을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이라 하고 아내의 역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이라고 하였다²⁷⁾. 즉 남편은 과업 수행, 문제 해결,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부인은 가족원 상호 간의 통합 관계, 긴장 완화, 정서적 가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와 같은 역할의 분화가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한 산업 사회 초기의 기능적 가족 형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핵가족화, 여성 교육의 향상,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 자녀 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부부 간의 역할도 전통적인 형태에서 현대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²⁸⁾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부부의 역할을 남자의 일 또는 여자의 일로 구분하여 여자들을 가정에 얽어매어 전통적 역할만을 하게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속담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부 역할만 고려하기로 한다.

유교 이념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확고한 정치 이념으로 민간에까지 뿌리를 내려 가족 관계는 물론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도덕관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한·중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유교 사상은 부부 관계에서 가부장권 혼인 질서

26) 미국의 현대 분석 사회학자.

27) 성경원(2009:214)에서 재인용.

28) 성경원(2009:217~218)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고등교육 보편화, 남녀평등의식, 가족계획 등으로 인한 여성일생주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부부 간의 역할 분화가 보다 융통성 있게 변화하고 있지만, 역할의 융통성이 주로 부인들의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남성의 가정 내 역할에의 참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관념적으로는 부부 간의 평등을 받아들이나 실생활의 행동 면에서는 남편 우위적인 경우가 허다함을 직면할 때 진보적 의식을 지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일수록 더욱 큰 갈등에 빠질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家父長權婚姻秩序)를 지탱하는 도덕관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행동 강령으로 제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발행된 「내훈」(內訓)²⁹⁾이 대표적인 여자 교훈서로 혼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가부장권 혼인 관(家父長權婚姻觀)에 대한 여성의 의식 또한 결혼 후는 가정에서 요리, 육아가 중심인 생활 등 오랫동안 남성 지배 속에서의 아내의 지위를 여성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난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속담은 남편보다는 아내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부부 싸움, 악처(惡妻), 본처(本妻)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인데 특히, “조강지처(糟糠之妻) 내치고 잘 된 집구석 하나도 없다.”,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는다.”, “糟糠之妻不下堂。”³⁰⁾같은 속담들은 조강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으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유지시키려는 속담으로서 단연 돋보인다.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인생의 법칙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남편은 두레박, 아내는 항아리.”라는 한국 속담과 “男人是耙子, 女人是匣子。”³¹⁾라는 중국 속담과 같이 남편이 벌여 오는 돈을 아내가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저축을 하게 되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도 있다. 그러나 “남편을 잘못 만나면 당대 원수, 아내를 잘못 만나도 당대 원수.”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게 되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도 있다. 또한 “아내 나쁜 것은 백 년 원수, 된장 신 것은 일 년 원수.”라는 속담처럼 남편보다는 일반적으로 아내를 잘 만나야 함을 강조한 속담이 많은 편이다.

본 장에서는 부부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을 부부 각각의 입장, 즉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그리고 첩에 관한 속담으로 세분하고, 각 입장에서 서로

29) 고영원(2007)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음.

內訓: 조선 성종 6년(1475) 昭惠皇后 韓氏가 「烈女」, 「女教」, 「明鑑」, 「小學」의 네 책에서 부녀자의 교양에 알맞은 것들을 추려내어 엮어 놓은 三卷四冊으로 된 여자 교훈서로, 당시 여성들이 익혀야 할 최선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0)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는 뜻.

31) 남편은 갈퀴, 아내는 상자라는 뜻.

갖게 되는 생각과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속담들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 검토하여 두 나라 속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3.1.1. 남편의 입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심의 봉건사회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크므로, 가부장권 혼인 질서를 지탱하는 도덕관하에 남편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고무상(至高無上)의 권력을 갖게 되고, 부위처강의 인륜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부위처강의 남편 권위, 양처에 대한 선호, 양처 만들기, 부부 사랑 및 아내의 소중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첫째, 부위처강의 남편 권위주의를 담고 있는 양국 속담들이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농업이 근간을 이루므로 힘든 농사일은 대부분 남성의 몫이어서 남성이 가정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따라서 여성의 일이란 집안의 살림살이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성의 운명은 남편에 의해 좌우되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다.

<한국 속담>

(3) ㄱ.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ㄴ. 장닭이 울어야 날이 새지.

ㄷ.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ㄹ. 봉이 가면 황도 간다.

ㅁ. 구름은 바람 따라 모이고, 바람 따라 흩어진다.

ㅂ.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ㅅ. 집안이 화합하려면 베개 밑 송사는 듣지 않는다.

<중국 속담>

(4) ㄱ. 天字當頭夫做主。

(하늘이 머리 위에 있듯이, 남편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ㄴ. 既嫁從夫。

(시집을 가면, 모든 면에서 남편을 따라야 한다.)

ㄷ. 丈夫就是一重天。

(남편은 하늘이다.)

ㄹ. 夫爲妻綱。³²⁾

(남편은 아내의 버리이다.)

ㅁ. 天命不可逃，夫命不可違。

(천명은 피할 수 없으며, 남편의 명령은 어기면 안 된다.)

ㅂ. 夫有再娶之義，婦無二適之文。

(남자는 재혼해도 되는 반면에, 여자는 두 집의 차를 못 마신다.)

ㅅ. 婦人之言不可聽。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위의 예들은 부위처강의 가부장적 혼인 질서를 나타난 양국의 속담들인데, 근본적으로 볼 때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나라 속담 (3ㄱ~ㅁ)과 (4ㄱ~ㅁ)에서는 모두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남편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반영하고 있다. (3ㄷ)과 (4ㄷ) 모두 여자의 정결을 요구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리고 (3ㅅ)과 (4ㅅ)에서 반영한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속담이 두 나라 속담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속담 (4ㄷ)과 같이 중국에서는 남자가 재혼해도 정당하다는 것

32) 즉 여자가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유교(儒敎) 도덕(道徳)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강령(綱領)과 다섯 가지의 인륜을 이르는 말로, ①삼강(三綱)은 유교(儒敎) 도덕(道徳)이 되는 세 가지 뼈대가 되는 줄거리로서,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부모(父母)와 아들(父爲子綱)이 지켜야 할 몇몇한 도리(道理) ②오륜(五倫)은 유교(儒敎) 실천(實踐) 도덕(道徳)에 있어서 기본(基本)이 되는 다섯 가지의 인륜, 즉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말함.

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 이런 속담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축첩제도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법제상 중혼(重婚)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양처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양국 속담들이다. 이 부분도 두 나라의 속담 중에서 공통 입장에 속한 것인데 남편은 집안의 중심축이고 이 중심축이 아내의 내조에 따라 출세는 물론 가정의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양처에 대한 선호는 양국 속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5) ㄱ. 좋은 아내는 집안의 보배.

- ㄴ. 이 복 저 복 해도 처복이 제일이다.
- ㄷ. 어진 아내는 일생의 복이요, 못된 아내는 삼대 흉년이다.
- ㄹ. 집안이 편안하려면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
- ㅁ. 악처는 패가망신의 장본.
- ㅂ. 아내 나쁜 것은 백년 원수.
- ㅅ. 물과 불과 악처는 삼대 재액.

<중국 속담>

(6) ㄱ. 家有賢妻，不吃淡飯。

(양처가 집에 있으면 반찬 없는 밥을 먹을 리가 없다.)

ㄴ. 家有賢妻，夫有閑逸。

(집에 양처가 있으면 남편이 편하다.)

ㄷ. 家有賢妻，美滿和氣。

(집에 양처가 있으면 집안이 화목하다.)

ㄹ. 妻賢禍變福。

(아내가 현명하면 재해는 복으로 바뀐다.)

ㅁ. 賢妻喚回迷路郎。

(현명한 아내가 방향을 잃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린다.)

ㄴ. 妻賢夫禍少。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은 재난이 적다.)

위의 속담을 통해 양국은 모두 집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의 출세, 집안의 흥망성쇠 모두 여자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관점이 두 나라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일에만 한정된 여성은 남편이 바깥 일을 하는 동안 충실하게 내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속담 속에는 남편에 대한 헌신과 집안일에 전념해 내조를 잘하라는 느낌이 배어 있는 것이다.

남편의 출세나 그 밖의 일이 아내의 현명함과 그에 따른 내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남편의 무능과 다른 과오가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속담이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집안일을 하거나 내조를 게을리 하면 책임의 소재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의 속담을 사용하는 이는 대부분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가족 내에서 지위가 높았던 시어머니나 남편들 스스로 많이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양국 간 차이점은 한국 속담에는 (5ㄱ~ㄷ)처럼 양처가 집안에 주는 이익과 함께 (5ㄹ~ㄴ)처럼 악처로 인한 폐해도 함께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 속담 (6ㄱ~ㄴ)에서는 모두 양처가 있으면 집안이 화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악처로 인한 폐해 부분을 찾기 쉽지 않다. 이는 중국 사람들은 외적인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속담에서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셋째, 아내 길들이기에 관한 것으로 양처 만들기이다. 체면치레가 중시되었던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양처가 선호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상 가장의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던 남편이 양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 역시 상대적 지위에서 아내보다 상위에 속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나왔을 속담일 가능성이 크다. 양처를 만들기 위해 남편이 해야

하는 일로 아내 길들이기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 (7) ㄱ. 색시그루는 다홍치마 적에 그루에 앉혀야 한다.
ㄴ.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에 앉힌다.
ㄷ. 북어와 여자는 두들겨야 한다.
ㄹ.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ㅁ. 북어하고 팔은 두들겨 꺾질 벗기고, 촌놈하고 계집은 두들겨 길들이다.

<중국 속담>

- (8) ㄱ. 媳婦不打，上房揭瓦。³³⁾
(아내가 맞지 않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뚫다.)
ㄴ. 寵下的妻，胯下的馬，任我騎來任我打。
(부뚜막의 아내와 가랑이 밑의 말 모두 내 마음대로 타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ㄷ. 打倒的媳婦和倒的面。
(밀가루 반죽과 아내는 모두 때려야 한다.)

위의 예들은 똑같이 아내 길들이기에 관한 것으로 양처를 만들기 위한 양국의 속담들이다. 아내를 때려야 한다는 점은 두 나라가 다 일치한다. 갓 시집 온 여자가 양처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으로 다스려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때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속담 속에 들어있다. 특히 한국 속담 (7ㄱ)과 (7ㄴ)의 경우 시어머니나 사회적 위치가 남편과 비슷한 이가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조언했을

33)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집조차도 부수를 가능성이 있으니, 때려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만든 속담이다.

법한 속담이었다. (8ㄱ)은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집조차도 부수를 가능성이 있으니, 때려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만든 속담이었다.

농경 사회에서 소나 말은 농사일을 배울 때 매를 맞으며 배운 것처럼 속담(8ㄴ)에서는 시집온 아내가 소나 말 같은 대접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소나 말 등의 짐승은 말을 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때려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데 마찬가지로 시집온 여자들은 대부분 시집 식구들의 멸시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 집안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다.

다만 맞아야 하는 소재에 있어서 한국 속담은(7ㄷ~ㄱ)에서 본 것처럼 ‘복어, 팔, 촌놈’, 중국 속담은(8ㄴ, ㄷ)처럼 ‘말과 밀가루 반죽’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밀을 주식으로 하는 중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농경문화의 차이점과 복어를 때려서 국을 끓일 때 사용하는 한국의 음식문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다. 가부장권 혼인 질서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일심동체 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하므로 부부의 공통 입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 사상의 부부 관계에서 가부장권 혼인 질서를 지탱하는 도덕관은 남존여비(男尊女卑)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행동 강령을 제시했으므로 모두 남편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남편의 입장에 넣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 속담>

(9)ㄱ. 못된 아내가 효자보다 낫다.

ㄴ. 열 자식이 악처 하나만 못하다.

ㄷ. 이 효자 저 효자해도 늙은 할아버지 중신하는 자식이 효자다.

ㄹ. 누덕누덕 기워도 마누라 장옷.

- ㄱ. 술과 아내는 목을수록 좋다.
- ㄴ.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을 한다.
- ㄷ.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섭섭하다.
- ㄹ. 계집의 얼굴은 눈의 안경.
- ㅁ. 더러운 처와 악한 첩이 빈방보다 낫다.

<중국 속담>

(10) ㄱ. 十年修得同船度 百年修得共枕眠。³⁴⁾

(십 년의 인연으로 같은 배를 탈 수 있고, 백 년의 인연이 있어야 같이 잘 수 있다.)

ㄴ. 夫妻似骨肉。

(부부는 뼈와 살같이 가까운 관계이다.)

ㄷ. 夫妻和好，偕同到老。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

ㄹ. 夫婦和，家道成。

(부부의 사이가 좋으면 집안이 흥한다.)

ㄱ. 親不過父母，近不過夫妻。

(부모보다 더 친한 사이는 없고,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다.)

ㄴ. 一日夫妻百日恩，百日夫妻似海深。

(하루만 부부였더라도 백 일의 정이 있을 것이고, 백 일 부부의 정은 바다 보다 더 깊다.)

ㄷ. 夫愁妻憂心相親。

(남편에게 고민이 있으면, 아내가 걱정을 하고, 부부의 마음은 통한다.)

ㄹ. 夫妻不記隔夜仇。

(부부싸움은 하룻밤도 안 간다.)

ㅁ. 夫妻如一體。

34) 부부라는 관계를 맺는 것은 백년의 인연이 필요한 것처럼 어렵다는 뜻.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六. 夫和婦柔。

(남편은 친절해야 하고 아내는 유순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다. 위의 속담들을 통해서 또한 두 나라 속담에서는 아내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아내의 소중함을,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가 없어지면 느끼는 아쉬움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ㄴ)을 보면 양처가 아닌 악처라 할지라도 자식보다는 낫다는 표현을 볼 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가족 관계인지 알 수 있다. 비록 아내의 가정 내의 지위는 낮았지만 얽혀 있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한 아내가 남편과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두 나라 모두 아내라는 사실을 속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내의 입장에서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남편이 그 고단함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존재이며 남편을 믿고 시집살이를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한국 속담에서는 아내를 자식과 비교하고, 중국에서는 부모에 비유해서 부부의 가까운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며, 한국 속담에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처갓집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한국 속담 (9ㄱ), (9ㄴ), (9ㄷ)처럼 악처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 역시 특이하다.

3.1.2. 아내의 입장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크므로 남존여비의 사상을 몇 천 년 동안 지켜왔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한국 속담과 “夫天婦地, 男主女從.”³⁵⁾이라는 중국 속담은 충분히 이런 사상을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인격과 지위를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내로서 집안일만 신경을 쓰고, 바깥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으며,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렸

35)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며, 여자가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뜻.

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권리 같은 것이 없으며, 의무만 갖고 있는 존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남편 대신 효도하고, 시부모를 모신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아내한테 맡긴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시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다. 고부 관계,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한·중 양국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로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는 달성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계를 3.2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여기서는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아이를 낳고 혈통을 이어야 한다. 결혼한 여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댁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들을 낳은 경우는 집안의 제사를 지내주며 대를 물려줄 수 있게 되고, 남편을 대신해 큰 효도를 완성한다는 생각이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11) ㄱ. 무자는 죄다.

ㄴ. 아들 못 낳는 것도 죄다.

ㄷ. 아들 못 낳는 것은 칠거지악³⁶⁾의 하나다.

ㄹ. 아들 못 낳는 어미다.

ㅁ. 아들 못 낳는 여자는 팔자가 세다.

<중국 속담>

(12) ㄱ. 不孝有三，無後爲大。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불효다.)

ㄴ. 有子方爲妻，無子便爲婢。

(아들을 낳아야 아내가 되고, 아니면 하녀가 된다.)

ㄷ. 母以子貴。

36) 칠거지악(七去之惡): 부모에게 불복종하고, 아들이 없거나, 수다스럽거나, 도벽(盜癖)이 있거나, 음란(淫亂)하거나, 질투심(嫉妬心)이 있거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것.

(엄마는 아들로 인해서 신분 상승이 된다.)

ㄹ. 夫有出妻之禮。

(남편은 아내를 바꿀 권리가 있다.)

ㅁ. 妻子如衣服。³⁷⁾

(아내와 옷은 같다.)

위의 속담(11)과 (12ㄱ)을 통해서 양국은 모두 자식이 없는 것을 죄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공통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식은 특히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양국은 모두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것을 (11)번과 (12ㄴ, 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경이 국가 주축 산업이었던 농경 사회의 노동력 측면에서도 딸보다는 아들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의 팔자가 안 좋다고만 생각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속담 (12ㄷ)을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써 여자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양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사회적 신분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닌 아들을 낳음으로써 낳지 못할 때의 구박과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아들이 자란 후 혼인을 하면 본인은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된다는 의미의 신분 상승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즉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자신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위치에 올라 고된 일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하듯 자신의 며느리에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속담(12ㄷ)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쫓아낸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들도 있다. 이는 축첩제도를 정당화하는 봉건시대의 남자들이 사용한 하나의 논리로 이용되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모두 여자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속담들을 통해서 양국의

37) 옷을 벗고 싶을 때 벗을 수 있듯이, 아내도 버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남존여비의 사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남편을 모시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남성 지배 속에서의 아내의 낮은 지위를 여성 스스로가 인정한다. 여자로서 남편에게 늘 복종해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아내로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 대한 내조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집안일을 해야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두 나라 속담에서 다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예를 앞에서 제시한 (4) 및 (5)번의 예를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번 및 (5)번 속담들은 모두 양처 선호에 관한 속담들이며, 그 속에서 여자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양처가 되려면, 꼭 남편을 따라야 하며, 남편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양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자는 남편에게 늘 최선을 다하고 남편의 기호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자들의 비위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항상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평생 노력하면서 남편에게 적응해 가야만 양처가 될 수 있다.

넷째, 정결을 지켜야 한다. 봉건적 유교 사회 속에는 부녀자에게 정결을 강조하는 도덕관이 있다.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한국 속담과 “忠臣不事二主, 貞女不更二夫.”³⁸⁾라는 중국 속담이 있듯이, 양국 모두 이러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는 앞에서 제시한 조선시대에 발행된 『내훈』(內訓)이라는 여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서가 있고, 중국에는 『사서오경』(四書五經)³⁹⁾이라는 여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서가 있는데, 이러

38) 충신은 두 분의 임금을 모시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다는 뜻.

39) 夏于全主編 (2002)전언 부분에서 인용함.

《四書五經》是儒家的主要經典。自漢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開始，儒家思想便成爲中國封建社會的統治思想。漢朝中央政府將《詩經》，《尚書》，《禮記》，《周易》和《春秋》奉爲“五經”。至南宋，大儒朱熹將禮記中的《大學》，《中庸》兩章抽出單獨成篇，與《論語》，《孟子》並稱“四書”。自此始有“四書五經”之說。

(『사서오경』은 유가의 주요경전이다. 한무제(漢武帝)가 “백가(百家)를 배척하고 유가(儒家)만을 중시하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유가사상은 중국 봉건사회의 통치적인 사상이 되었다. 당나라 중앙 정부가 『시경』, 『상서』, 『예기』, 『주역』, 『춘추』를 『오경』이라고 하였다. 남송시대의, 대유(大儒)인 주희(朱熹)가 『예기』중에서 『대학』과 『중용』을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저서를 만든 다음, 『논어』 및 『맹자』와 함께 이를 『사서』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사서오경』이라고 칭하게 되었

한 교훈서 내용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는 스스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13) ㄱ.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 ㄴ. 하룻밤을 자도 현 각시.
- ㄷ. 열녀 과부 바람 들면 강 건너 고자까지 코피 터진다.
- ㄹ. 열녀문 하나가 서자면 삼층장에 피 묻은 숨이 가득 차야 한다.
- ㅁ. 열녀는 천한 첩에서도 난다.
- ㅂ. 죽어도 시집의 귀신.
- ㅇ. 남자는 배짱이요, 여자는 절개다.

<중국 속담>

(14) ㄱ. 忠臣不事二主，貞女不更二夫。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시지 않으며,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 ㄴ. 餓死事小，失節事大。
(굶어죽는 것보다 정절을 잃는 것이 더 큰 일이다.)
- ㄷ. 妻之不貞乃破家之本。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 ㄹ. 夫有再娶之義，婦無二適之文。
(남자는 재혼해도 되는 반면에, 여자는 두 집의 차를 못 마신다.)
- ㅁ. 生是夫家人，死做夫家鬼。
(살아서는 시댁의 사람이며, 죽어서는 시댁의 귀신이다.)
- ㅂ. 一與之醮，終身不改。
(한 번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다.)

八. 好馬不備二鞍, 好女不配二夫。

(좋은 말은 두 개의 말안장이 없고, 좋은 여자는 두 남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 甯爲短命忠貞鬼, 不做偷生喪節人。

(단명의 충정한 귀신이 될지언정, 숨어 사는 절개를 잃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위의 속담들을 통해서 양국은 모두 부녀자들에게 정절을 요구함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열녀가 되는 것이 힘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속담도 있지만, 또한 개인의 의지가 있다면 개가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도 있다.

중국 속담은 주로 평생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굶어죽는 것보다 정절이 더 중요하다는 속담을 통해서 봉건사회의 이러한 도덕관이 부녀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부녀자들은 죽어서도 시집의 귀신이라는 말을 통해, 늘 주위를 의식해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 성정이 사회의 제약으로 인해 억제당해야만 했던 과거 봉건시대의 억압받는 여자들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다.

3.1.3. 첩에 관한 속담

첩이라는 존재는 한국과 중국 모두 현재 일부일처(一夫一妻)혼인제도하에서는 없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존재하였다. 첩을 얻는 방식은 아내처럼 정식으로 중매를 통해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거나, 돈으로 사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첩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주종의 관계에 있는 처지였다.

그러한 비천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첩은 한 화목한 가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 힘은 바로 여자의 질투가 아닐까 생각한다. 첩은 보통 본처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쁘므로, 아내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첩의 입장에서 볼 때, 첩은 주종 관계의 종의 처지에서 주인의 아내한테 복종해야 하므로 아내와 첩 간의 경쟁과 긴장 관계는 멈춘 적이 없었다. 아래는 양국의

첩에 관한 속담들이다.

<한국 속담>

- (15) ㄱ. 첩은 큰마누라 정 빼먹는 재미로 산다.
 ㄴ. 첩 많은 놈 간 갈라진다.
 ㄷ. 두 계집 둔 놈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ㄹ. 본처는 소요, 첩은 여우다.
 ㄹ. 첩은 양념이고, 큰마누라는 밥이다.
 ㅂ. 못난 놈 본처보다 잘난 놈의 첩이 낫다.
 ㅅ. 본처의 정은 백 년이고, 첩은 삼년이다.
 ㅇ. 아내가 돌이면 서로 죽기를 바란다.
 ㅈ. 첩의 살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ㅊ. 발이 편하려면 버선을 크게 짓고, 집안이 편하려면 계집을 하나 뒤
 라.
 ㅋ. 시앗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ㅌ. 질동이 깨뜨리고 늦동이 얻었다.

<중국 속담>

- (16) ㄱ. 要得家不和，只消娶個小老婆。
 (집안이 시끄러우려면, 첩을 하나 데려오면 된다.)
 ㄴ. 娶妻娶德，納妾納色。
 (아내를 고를 때는 성품을 보고 고르고, 첩을 고를 때는 외모를 보
 고 고른다.)
 ㄷ. 妻不如妾。
 (아내가 첩만 못하다.)
 ㄹ. 妾事夫人如事舅姑，尊嫡絕妒嫉之原。
 (첩은 시부모 모시듯 본부인을 모셔야 하고, 본부인을 존중하면, 질

투의 마음을 없앨 수 있다.)

口. 狗肉不上調盤, 小老婆走不到人前。

(개고기는 팔보체에 올릴 수 없고, 첩은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없다.)

日. 好泥不填塘, 好女不填房。

(좋은 흙은 연못을 메우는 데 쓰지 않고, 좋은 여자는 첩이 되지 않는다.)

入. 甯作貧家媳, 莫作富家妾。

(가난한 집의 며느리는 될지언정, 부잣집의 첩은 되지 않는다.)

○. 甯願在林中做鳥, 不在房中做小。

(숲에 있는 새는 될지언정, 첩은 되지 않는다.)

ㄱ. 甯嫁窮夫, 不做側室。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갈지언정, 첩이 되지 않는다.)

ㄴ. 甯願粗食布衣爲人妻, 不願金衣玉食爲人妾。

(가난한 집의 아내가 될지언정, 부잣집의 첩이 되지 않는다.)

첩이라는 존재는 양국 모두 가정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존재임에 틀림없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첩과 이를 질투하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5ㄱ)에서 돌부처조차 외면한다는 것을 보면 첩을 집안에 들인 아내가 얼마나 첩에 대한 내적, 그리고 외적 갈등이 심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 한국 속담(15ㄴ)에서 아내와 첩의 갈등 속에서 속을 꿰이는 남편의 힘든 속을 표현한 속담을 살펴볼 때, 아내와 첩 간의 갈등이 남편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중국 속담 (16ㄱ)에서 첩이 들어와서 일으킬 분란에 대해서 예견한 속담만 봐도 첩의 존재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15)과 (16)를 통해 두 나라 모두 속담에서 보이는 첩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면, 중국 속담이 첩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극도로 잘 표현했다는 점이다. 중국 속담 (16口)을 보면 첩을 개고기에 대응되는 위치에 놓는 것을 봤을 때 첩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낮으며 또한 사람들로부

터 얼마나 큰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표현적 차이를 보면 중국 속담의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면서 계도적(啓導的)이어서 (16○), (16ㄴ), (16ㄷ) 등에서 첩이 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속담에서는 (15ㄴ), (15ㄷ), (15ㄱ)처럼 표현이 익살스러우면서 해학적인 표현을 주로 썼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2. 부모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며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밀접한 관계이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녀가 있음으로써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되며 부모 역할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전형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가족 전체의 가족 문화 형성과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부모로서의 부부는 자녀의 모델이며 생명의 수혜자로서 그들의 성장기 때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자녀의 성격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매우 절대적이며 부모의 불화나 걱정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정덕 외(1998)에서는 “자녀 양육을 통해 부모는 부모감(父母感)이라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깊이와 기쁨을 알게 해 주는 사랑의 대상이자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된다.

본장에서는 혈연으로 형성된 부모와 자식 관계에 관한 양국 속담을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으로 세분하고, 서로 갖게 되는 생각과 정서, 태도가 담긴 속담들을 모아 각각의 항목에 따라 속담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 검토하여 양국 속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2.1. 부모의 입장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깊이와 기쁨을 알게 해 주는 사랑의 대상이자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키우려는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에는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라는 속담이, 중국어에는 “可憐天下父母心。”⁴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아끼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기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자녀는 매우 귀한 존재이며 더욱이 아들의 경우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며 대를 이어줄 존재였으므로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래 예를 보기로 하자.

<한국 속담>

(17) ㄱ. 계집은 남의 것이 곱고 자식은 제 새끼가 곱다.

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ㄷ.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ㄹ. 자식은 내 자식이 커 보이고 벼는 남의 벼가 커 보인다.

ㅁ. 제 새끼 잡아먹는 범은 없다.

ㅂ. 제 자식 잘못은 모른다.

ㅅ.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 되는 데는 강하다.

ㅇ.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중국 속담>

(18) ㄱ. 父愛如山。

(아버지의 사랑은 산만큼 크다.)

40) 세상의 부모 마음을 동정한다는 뜻.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더욱 불쌍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ㄴ. 母愛如海。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만큼 깊다.)

ㄷ. 莊稼是人家的好，孩子是自家的好。

(농작물은 남의 농작물이 좋고,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좋다.)

ㄹ. 捧在手裏怕掉了，含在嘴裏怕化了。

(손에 받쳐 들면 떨어질까, 입에 넣어두면 녹을까.)

ㄱ. 熱不過三伏，親不過骨肉。

(더워도 삼복만큼 덥지 않으며, 가까워도 혈육만큼 가깝지 않다.)

ㄴ. 貓狗主人親，兒女父母愛。

(개와 고양이 사랑은 주인이 하고, 자녀 사랑은 부모가 한다.)

ㄷ. 手掌手背都是肉，十個指頭個個疼。

(손등과 손바닥이 모두 살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ㄹ. 可憐天下父母心。

(세상의 부모 마음을 동정하다.)

위의 속담들을 통해서 양국의 모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속담에는 자녀가 많아도 부모는 모든 자녀를 빠짐없이 다 사랑해 주고, 자녀가 못 생겨도 귀엽다고 하고, 자기의 자식을 많이 사랑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좋아 보이고 커 보인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

또한, 한국의 속담에는 (17ㄱ), (17ㄴ)처럼, 고슴도치나 벌과 같이 여러 종류 동물들이 등장해 ‘동물들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찌 크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혼인으로 생긴 부부 관계와는 달리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이므로 흠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 더 낫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17ㄱ), (17ㄹ)을 볼 때 확연히 나타난다.

중국 속담 (18ㄷ) 역시 위의 설명과 대응되는 속담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양국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한국 속담에서는 자식을 너무 사랑

해서 잘못이 있더라도 부모가 모른다는 (17ㄱ) 속담과 (17ㄴ)의 표현처럼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은 부드럽다.”라는 속담은 자기 자식의 모든 것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한다.

둘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녀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잠시라도 없다. 다음 속담들은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부모의 심정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속담>

(19) ㄱ.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ㄴ.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ㄷ. 자식 둔 부모는 알 둔 새 같다.

ㄹ. 아들 셋을 기르면 눈알이 변한다.

ㅁ. 낳는 날부터 재우는 건 아기다.

ㅂ. 아이를 기르려면 무당 반에 어사 반이 되어야.

ㅅ. 흉년에 어머니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

ㅇ.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머니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ㅈ. 자식은 애틍이라.⁴¹⁾

ㅊ. 지네발에 신 신긴다.⁴²⁾

ㅋ. 무자식 상팔자.

<중국 속담>

(20) ㄱ. 兒行千里母擔憂。

(아들이 외출하면, 어머니가 걱정을 한다.)

ㄴ. 當家才知柴米貴，養兒方曉父母恩。

(집안을 도맡아 봐야 쌀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을 키워

41)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걱정만 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2) 발 많은 지네에게 신을 신긴다는 것으로, 부모는 많은 자식들을 모두 돌보려고 애쓴다는 말.

봐야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된다.)

ㄷ. 要知父母恩，懷裏抱兒孫。

(부모의 은혜는 자기 품의 자식이 생겨야만 알 수 있다.)

ㄹ. 從小不知老娘親，育兒才知報娘恩。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식을 키우고 나서야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

ㅁ. 處事方知父母恩。

(어른이 되어야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된다.)

위의 속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서 (19ㄷ)처럼 ‘무자식 상팔자’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다. 자신이 낳은 자녀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것이 좋은 팔자라는 말은 그 정도로 자식 양육이 힘든 일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자식을 기른다는 (19ㄸ)의 속담은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위의 한국 속담을 통해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위해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 늘 마음과 몸이 고생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속담은 대부분 (19ㄴ), (19ㄷ), (19ㄸ)처럼 자녀를 키우는 과정 중의 직접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중국 속담에서는 (20ㄴ~ㅁ)처럼 자녀를 키우는 과정의 어려움을 생략하고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어려움을 자녀 역시 혼인을 통해 자신과 같이 아이를 낳아 키워봄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는 속담이 많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본인도 그 고생을 겪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속담에서도 한국의 속담 표현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직접 고생을 표현하기보다는 비유를 들어 말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자녀에게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감대가 형성된다.

셋째, “황금 천 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표현하였다. 인류의 문화는 교육에 힘입어 성장 발달하였으며, 문화의 전승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의 작용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역시 교육은 한 개인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행복을 열어 주는 열쇠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기대는 고스란히 자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으로 연결되어 두 나라의 속담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교육백년지대계”(教育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두 나라에서는 모두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를 실행하였다.

<한국 속담>

(21) ㄱ. 황금 천 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 ㄴ. 남의 자식 홍보지 말고 내 자식 가르쳐라.
- ㄷ. 돈 모아 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라.
- ㄹ. 어린 아이 예뻐 말고 겨드랑 밑이나 잡아 주어라.
- ㅁ. 남의 자식 홍보지 말고 내 자식 글 가르쳐라.
- ㅂ. 나무는 묘목으로부터 가지를 쳐주어야 한다.⁴³⁾
- ㅅ. 귀둥이가 천둥이 된다.⁴⁴⁾
- ㅇ. 미운 애한테는 엇을 주고, 귀여운 애한테는 매채를 준다.
- ㅈ.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 ㅊ.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 ㅋ. 팽이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 ㅌ.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 ㅍ. 아이들 앞에서는 입도 못 놀린다.

<중국 속담>

43) 인재를 기르려면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

44) 귀염을 받고 자란 아이가 변해 개구쟁이가 된다는 말.

(22) ㄱ. 賜子千金, 不如教子一藝。

(자식에게 천금을 주는 것을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 못한다.)

ㄴ. 家有黃金用鬥量, 不如送子上學堂。

(집에서 황금을 헤아리는 것은 자식을 학당에 보내는 것만 못하다.)

ㄷ. 修樹趁早, 教子趁小。

(나무는 일찍 심어야 하고, 자식은 어릴 때 가르쳐야 한다.)

ㄹ. 早不起誤一天, 小不學誤一生。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를 망치고, 어릴 때 배우지 못하면 일생을 망친다.)

ㅁ. 棒頭出孝子, 篲頭出忤子。

(막대기 밑에서 효자 나고 쭈다 밑에서 불효자가 나온다.)

ㅂ. 玉不琢不成器, 孩子不打不成才。

(옥은 갈지 않으면 좋은 옥이 될 수 없고, 아이는 때리지 않으면 인재가 될 수 없다.)

ㅅ. 寵是害, 嚴是愛。

(너무 귀여워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엄격한 것이 사랑이다.)

ㅇ. 青柴難燒, 嬌子難教。

(물기 있는 땃감은 태우기 어렵고, 응석받이는 가르치기 힘들다.)

ㅈ. 老子偷瓜盜果, 兒子殺人放火。

(아버지가 과일을 훔치면 아들은 살인을 하거나 불을 지른다.)

ㅊ. 先正自己, 後正兒孫。

(자신을 올바르게 한 후에야 후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상의 속담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들로, 양국 속담 모두 자녀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남의 자녀의 흉을 거울삼아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도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식은 남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자녀에게 공부나 어떤 기술을 하나 가르치는 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유용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중국인들의 관념을 반영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속담 (22口), (22日)과 중국 속담 (22二)을 보면 자식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여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칫 자식을 응석받이로 키우기 쉬우므로 체벌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엄하게 가르칠 것을 권계하고 있으며, (21ㅌ), (21표), (22ㅈ)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자연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양국의 속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 엄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양국 속담 간에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또한, 한국 속담 (21ㅌ), (21표)에서 보듯이, 부모가 아이 앞에서 나쁜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속담에서는 나쁜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명시적인 속담이 없지만, (22ㅈ)처럼 “아버지가 과일을 훔치면 아들은 살인을 하거나 불을 지른다.”는 속담이 있으니, 이는 아이들은 부모한테 작은 버릇을 배웠더라도, 크면 큰 죄를 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아이들 앞에서 나쁜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써 (22ㅈ)같은 속담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이는 부모를 따라 배우며 자신의 핏줄만 잇는 것만이 아닌 부모의 성품까지 잇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속담이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속담은 양국 속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속담>

(23) ㄱ. 외 덩굴에 수박 열린다.⁴⁵⁾

ㄴ. 호랑이 아비에 개자식은 없다.

45) 외 덩굴에 수박 열리지 않듯이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을 어길 수 없다. 아버지와 아주 판 판인 자식은 있을 수 없다는 말.

- ㄷ. 씨도득은 못한다.
- ㄹ. 외 심은 데 콩 나라.
- ㅁ. 그 아비에 그 아들.
- ㅂ. 어미는 자기와 닮은 새끼를 낳는다.
- ㅅ. 아들은 아버를 닮고 , 딸은 어미를 닮게 마련이다.
- ㅇ. 부모가 반 팔자.⁴⁶⁾
- ㅈ. 아버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그 아버를 짐작할 수 있다.
- ㅊ. 아버 가는 데 아들이 간다.⁴⁷⁾
- ㅋ. 아버는 범이고, 자식은 개다.⁴⁸⁾

<중국 속담>

(24) ㄱ. 龍生龍, 鳳生鳳, 老鼠的孩子會打洞。

(용이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고, 쥐새끼는 구멍을 팔 줄 안다.)

ㄴ. 虎父無犬子。

(호랑이 아비에 개자식이 없다.)

ㄷ. 將門出虎子。

(장군 가문에 못난 자식이 없다.)

ㄹ. 孝門出孝子。

(효자 가문에만 효자가 나온다.)

ㅁ. 父親英雄兒好漢。

(아버지가 영웅이면, 아들도 영웅이다.)

ㅂ. 上梁不正下梁歪。

(상량이 바르지 않으면, 아래 량이 기운다.)

46) 자식의 운명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절반은 결정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47) 부자간에는 서로 닮기 마련이다.

48) 훌륭한 아버지에 못난 자식이라는 뜻.

八. 父親犯罪, 兒女學樣。

(아버지가 죄를 안고 살면 자식도 따라서 배울 것이다.)

○. 其父盜, 其子必劫。

(아버지가 도둑질하면 아들은 꼭 강도질한다.)

ㄷ. 父不正, 子奔他鄉。

(아버지가 정직하지 못하면, 아들은 고향을 떠난다.)

ㄸ. 父不識耕田, 子不識種谷。

(아버지가 논밭을 갈 줄 모르면, 아들은 곡식을 심은 줄 모른다.)

ㄿ. 父母正了子易正。

(부모가 정직해야 아들이 정직하다.)

ㅌ. 有其父必有其子。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위의 속담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23ㄿ)과 같은 특이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좋은 품성과 성정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좋은 품성을 갖게 되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나쁘거나 재주가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와 닮는다는 점을 내세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23ㄿ)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속담에서 또한 재능이 많은 부모도 재능이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후천적으로 부모한테 배운 것보다 선천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넷째, “아들은 말 태워 놓으면 사촌이 되고, 딸은 시집보내면 육촌이 된다.”는 속담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혼인시켜야 하지만, 혼인을 시킨 후 부모로서 느끼는 서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남권 사회(男權社會)인 한국과 중국은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다 제 자녀지만, 속담을 통해서 아들과 딸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난다.

<한국 속담>

(25) ㄱ. 아들도 말 태워 놓으면 사촌 된다.

ㄴ. 딸은 시집가면 온 남이 되고, 아들은 장가가면 반 남이 된다.

<중국 속담>

(26) ㄱ. 兒女都是給別人養的。

(자녀는 다 남을 위해서 키운 것이다.)

ㄴ. 兒子是給媳婦養的。

(아들은 며느리를 위해서 키운 것이다.)

ㄷ. 娶了媳婦忘了娘。

(장가를 가고 나면 어미를 잊는다.)

이상의 속담은 양국의 부모가 자녀를 혼인을 시키고 나서 느낀 서운함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다. 자녀의 혼인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다는 생각으로 서운할 수밖에 없었다. (26ㄱ)과 (26ㄴ)을 통해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소홀해지게 되는데, 이는 (26ㄷ)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결혼시킨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입장에서 더욱 그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였다. 이와 같은 박탈감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고부간의 갈등과 연관이 된다. 딸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의식을 담고 있는 속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27) ㄱ. 딸 반은 적고 딸 하나는 많다.

ㄴ.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

ㄷ. 아들은 내 조상 묘를 지키지만,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

ㄹ. 딸은 남의 식구 되지만, 아들은 내 혈육을 잇는다.

- ㄱ. 딸은 남의 자식이다.
- ㄴ. 딸은 출가외인이다.
- ㄷ. 딸네는 아무리 잘 키워도 손해라.
- ㄹ. 딸은 도둑년이다.
- ㅈ. 딸은 두 번 서운하다.
- ㅊ. 아들 못 낳는 것도 죄다.
- ㅋ. 아들 못 낳는 것은 칠거지악의 하나다.
- ㅌ. 아들 복이 천복.
- ㅍ.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못한다.
- ㅎ. 아들은 울타리다.

<중국 속담>

(28) ㄱ. 女生外向。

(여자는 시집가면 생가를 떠나기 마련이다.)

ㄴ. 養男不養女, 養女要受苦。

(딸을 키우는 것보다 아들이 더 낫다.)

ㄷ. 女兒一個也嫌多, 兒子三個也還缺。

(딸은 한 명만 있어도 많고, 아들은 세 명 있어도 부족하다.)

ㄹ. 男強女弱, 女不如男。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며, 여자는 남자만 못하다.)

ㅈ. 三女不如一男。

(딸이 세 명 있어도 아들 한 명만 못하다.)

ㅊ. 傳家不傳外, 傳子不傳女。

(유산은 남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

ㅄ. 兒大不由爹, 女大不由娘。

(아들과 딸이 크면 제 마음대로 한다.)

ㅇ. 養女出嫁一場空, 育男娶妻滿堂紅。

(딸은 출가하면 얻는 것이 없으며, 아들은 장가가면 대를 잇고 각 방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ㄷ. 嫁出去的女兒, 潑出去的水。

(출가한 딸은 버린 물과 같다.)

ㄸ. 女嫁外鄉, 出家和尚。

(딸은 멀리 시집가면 출가한 스님과 별 차이 없다.)

ㄹ. 姑娘送出門, 不關娘家事。

(딸은 시집을 가면, 친정집과 연관이 없다.)

ㅅ. 生個女兒生個賊。

(딸은 도둑이다.)

ㅇ. 嫁出去的女, 賣出去的地。

(출가한 딸은 팔아버린 땅과 별 차이 없다.)

이상의 속담들은 모두 남아 선호 사상에서 나온 것들인데, 한국과 중국은 딸보다는 아들을 더 소중하게 느끼며, 아들이 가정의 울타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아들이 없으면 죄라고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것 역시 남존여비의 유교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 속담에서는 딸을 도둑과 남이라고 비유하는 점도 똑같은데, 이는 출가한 딸은 시댁만 돌봐주고, 친정집에 대해 신경을 못 쓸 뿐만 아니라, 시댁을 위해 친정집에 있는 것도 챙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속담에는 출가한 딸은 팔아버린 땅과 별 차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비유가 생긴 것은 농경 사회에서 땅은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 자식으로서 딸은 소중하지만 출가해 버린 딸은 남의 식구가 되므로 출가하면 남과 같다고 풀이된다.

아들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도 농경 생활에서 땅과 노동력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시기였으므로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아들이 부모에게는 딸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출가하면 ‘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딸에 대한 사랑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한국 속담>

(29) ㄱ. 딸은 두 번 서운하다.

- ㄴ. 딸은 딸 많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랬다.
- ㄷ. 딸은 시집보내면 더 걱정이 된다.
- ㄹ. 딸 낳아 시집은 못 보내겠다.⁴⁹⁾
- ㅁ. 딸 먹는 것과 쥐 먹는 것은 가까운 줄 모른다.
- ㅂ. 딸 살리려고 양념단지가 열두 개.⁵⁰⁾
- ㅅ. 딸 밥은 부엌에서 먹는다.⁵¹⁾
- ㅇ. 딸네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

<중국 속담>

(30) ㄱ. 母女天性，人物一理。

(모녀의 천성은 사람과 자연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와 같다.)

ㄴ. 娘邊的女兒骨邊的肉。

(어미와 딸은 살 옆에 붙은 뼈와 같다.)

ㄷ. 女兒是娘的心頭肉。

(딸은 어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ㄹ. 娘跟女親，手跟嘴近。

(어미와 딸이 가깝고, 손과 입이 가깝다.)

ㅁ. 娘挂閨女，急在心裏，閨女挂娘，急斷心腸。

(어미가 딸을 걱정하는 것이 마음에 있고, 딸이 어미를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ㅂ. 女兒好，女兒好，女兒是母親的小棉襖。

49) 딸을 시집조차도 못 보낼 정도로 아까워 한다는 뜻.

50) 시집에서 딸을 괘시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대준다는 뜻.

51) 딸네 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싶지 않는 뜻.

(딸은 어미의 속옷과 같은 존재이다.)

딸은 아들처럼 집안 대를 이을 후계자이며 가장이라는 구조적 권리와 의무 관계는 없지만, 자녀이므로 순수한 아버지 마음으로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속담에서 “딸은 두 번 서운하다.”는 것은 딸이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딸이 출가해 시댁에 가서 그 집 식구가 되어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서운하다는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시집살이를 경험한 어머니가 그 고단함을 알기에 딸이 더 안쓰럽고 애착이 갈 수 있다. 양국 속담 모두 주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속담이 대부분이다. 이는 부계사회에서의 낮은 지위를 지닌 같은 여자로서 약자끼리 서로 동정하며, 여자로서 생활 영역이 같고 관심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딸 역시 어머니가 임신, 출산의 고통을 거쳐서 낳은 자식이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중국 속담에서도 역시 어머니가 딸에게 느끼는 사랑과 안쓰러움이 배어있는 속담이 많지만 한국 속담 (29ㄷ), (29ㄸ)과 같이 결혼 후에도 어머니가 딸에게 경제적인 배려를 하는 속담은 없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는 지참금에 대한 양국 간 풍습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딸에 대한 특이한 속담들이 눈에 띄는데, 바로 출가 비용 때문에 부모가 갖게 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한국 속담>

(31)ㄱ. 딸 시집보내면 도둑맞은 폭이 된다.

- ㄴ. 딸 둘을 시집보낸 집엔 도둑도 그냥 지나간다.
- ㄷ. 딸 셋이면 오던 도둑도 되돌아간다.
- ㄹ. 딸 다섯 둔 집은 문 열어놓고 잔다.
- ㅁ. 딸 다섯 둔 집은 도둑도 안 들어온다.

<중국 속담>

(32) ㄱ. 嫁了女兒賣了牛。

(딸을 시집보냈더니 소가 팔려버렸다.)

ㄴ. 盜賊不過五女之門。

(도둑도 딸 다섯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나서, 집이 도둑맞은 것처럼 재산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들을 통해서 부모가 딸의 결혼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속담들을 양국 속담 중에서 다 찾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딸이 결혼할 때 남자는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 하므로 딸을 갖고 있는 부모가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속담이 생긴 이유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대 문화의 차이를 모른 채 번역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2.2. 자식의 입장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며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으로 서 지녀야 할 도의(道義)라고 할 수 있다. “아들로서 귀한 것은 효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식 된 도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더 보기로 하자.

<한국 속담>

(33) ㄱ. 아버지 공은 천 년이고, 어머니 공은 만 년이다.

ㄴ. 아이 어미가 돼 봐야 부모 은덕도 안다.

ㄷ.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⁵²⁾

ㄹ. 효자의 집엔 방바닥에서 대가 나온다.⁵³⁾

<중국 속담>

(34) ㄱ. 父愛如山, 母愛如海。

(아버지의 사랑은 산만큼 크고,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만큼 깊다.)

ㄴ. 要知父母恩, 懷裏抱兒孫。

(부모의 은혜는 자기 품에 자식이 생겨야만 알 수 있다.)

ㄷ. 孝心所至, 金石爲開。

(아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천우신조도 있게 되는 법이니, 자식은 아버이에 대하여 효성을 다해야 한다.)

위의 속담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혼인을 한 후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큰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다. 한국 속담 (33ㄱ), (33ㄴ)과 중국 속담 (34ㄱ), (34ㄴ)은 모두 부모의 은공이 크다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며, 이러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속담 (33ㄷ), (33ㄸ)과 중국 속담 (34ㄷ)은 효도를 하면 하늘조차도 감동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결코 효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인륜관계를 알 것이며,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은공을 모르더라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효도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한다. 그렇다면,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래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속담>

(35) ㄱ. 아버지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⁵⁴⁾

52) 아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천우신조도 있게 되는 법이니, 자식은 아버이에 대하여 효성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

53)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표시를 낸다는 뜻.

ㄴ.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중국 속담>

(36) ㄱ. 父叫子亡, 子不得不亡。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으라고 하면 아들은 죽어야 한다.)

ㄴ. 父命不可違。

(아버지의 명령은 어길 수 없다.)

ㄷ. 父在前子不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발언권이 없다.)

ㄹ. 子不言父過。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ㅁ. 天下無不是的父母。

(천하에 부모는 잘못이 없다.)

ㅂ. 不順乎親, 不可以爲子。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도 아니다.)

ㅅ. 順則爲孝。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다.)

ㅇ. 父母在, 不有私財。

(부모 계실 때 쌈짓돈이 없어야 한다.)

위 속담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한국 속담 (35)에서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은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 속담 (36 ㄱ)처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과 (36 ㄹ, ㅁ)처럼 자식이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단지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36 ㅂ, ㅅ)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부모한테 순종하는

54)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라는 뜻.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속담에서 담고 있다. 또한 (360)처럼 중국에서 부모 계실 때 쌀짓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경제력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며, 부모가 준 사랑의 반 정도도 그만큼 부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속담들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부모의 입장에서 표현한 속담과 함께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여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 속담>

(37) ㄱ. 어미 마음은 자식이 모른다.

ㄴ. 어미 마음 반만 알아도 효자다.⁵⁵⁾

ㄷ. 아버지가 생각하듯 아버이를 생각하는 자식 없다.⁵⁶⁾

ㄹ. 어미 말 먼저 잡고 내 말 잡는다.⁵⁷⁾

ㅁ. 아비와 아들이 말 타고 가면, 자기 말 매어 두고 아버지 말을 맨다.⁵⁸⁾

ㅂ. 아비 팔아 노자하고, 어미 팔아 친구 산다.⁵⁹⁾

ㅅ. 긴 병에 효자 없다.

ㅇ. 삼 년 구병에 불효난다.

ㅈ. 효자가 악한 처만 못하다.

ㅊ. 효자보다 못된 영감이 낫다.

<중국 속담>

(38) ㄱ. 只有癡心的父母，沒有孝敬的兒郎。

55) 자녀가 어머니 마음의 절반만 이해한다 해도 효자 소리를 들을 만하게 된다는 뜻.

56)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

57) 자녀들은 부모보다 자기 생각부터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8) 자녀는 부모보다 자신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

59) 자녀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

(자녀에게 빠지는 부모는 있어도, 효도하는 자녀는 없다.)

ㄴ. 水往下流，人往下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ㄷ. 只有順疼來，沒有反疼去。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ㄹ. 娘疼兒，口裏吐，兒疼娘要手裏有。

(어미는 입에서 아껴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손에 여유 있을 때만 어미한테 준다.)

ㅁ. 老燕含泥天天累，翅膀硬了各自飛。

(늙은 제비가 흙을 물어오기 때문에 고생하며, 자식은 날개가 단단해 지면 떠난다.)

ㅂ. 娘疼兒疼斷腸，兒疼娘是過場。

(어미는 진심으로 자식을 아끼며, 자식은 가식적으로 한다.)

ㅅ. 娘親爹親真心疼，兒親女親要看心。

(아버이는 진심으로 자식을 아끼며, 자식은 마음씨에 달렸다.)

ㅇ. 壹父可養九子，九子難養壹父。

(아버이 한 명은 아홉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반면, 아홉 자식은 한 명의 아버지를 봉양 못한다.)

ㅈ. 久病床前無孝子。

(긴 병에 효자 없다.)

ㅊ. 十子不如老來伴。

(열 명의 자식도 한 명의 반려자만 못하다.)

위 속담들을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 줄 수 있지만, 자녀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37ㄷ)처럼 부모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한국 속담도 있는데,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더 부족하다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에서는 내리사랑만 있고, 치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 속담들로 만들었는데, 이는 부모

가 사랑을 해준 만큼 자식들이 효도를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국 속담 모두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자녀는 반려자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이 있으며, 이는 부모 입장에서의 서러움을 더 뚜렷하게 표현하게 된다.

한편, 효도는 못할망정 불효를 하는 자식들의 경우도 있는데 다음 속담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한국 속담>

(39) ㄱ. 아비 잡아먹는 파경이요, 어미 잡아먹는 올빼미다.⁶⁰⁾

ㄴ. 아비 죽은 데 춤추기.⁶¹⁾

ㄷ. 효자는 부모의 입에서 낳는다.⁶²⁾

ㄹ. 효자 효녀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⁶³⁾

<중국 속담>

(40) ㄱ. 兒子打老子，天上掉雹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

ㄴ. 活著不敬奉，死了胡弄送。

(살아 계실 때 존경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으며, 돌아가실 때도 대충 장례를 치른다.)

ㄷ. 父望子成龍，子望父升天。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기를 바란다.)

60) 파경이라는 짐승은 아버지를 잡아먹고, 올빼미는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전해짐. 부모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패륜아를 두고 빗대는 말.

61) 아주 분별력이 없는 패륜아라는 뜻.

62) 효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입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으로 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 다해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 핑계로 많이 쓰임.

63) 옛날에 친상을 당하면 자식들이 오래도록 묘소를 지키느라고 집안을 돌볼 수 없다는 뜻을 빗대는 말.

한국 속담 (39ㄱ)과 (39ㄴ), 그리고 (40)에 나온 중국 속담들은 모두 불효자에 대한 속담들인데, 효도는커녕 아버를 때리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돌아가면 춤추는 패륜아를 표현한 속담을 통해서 불효자 역시 적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9ㄷ)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효자인지 아닌지를 부모의 입에 의해 좌우한다는 속담은 자식들이 스스로 반성 하지 않고, 부모의 탓을 하려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39ㄷ)을 통해서, 부모는 자식이 불효자일망정 밖에서는 자식을 효자로 치켜세우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체면도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이 불효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한국 속담 중에서 또한 “효자 효녀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옛날 농경 사회에서 친상을 당하면 자식들이 오래도록 묘소를 지키느라고 집안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빗대는 말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인륜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의 은공을 모르다가 돌아가고 난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한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자식들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회한이 담긴 속담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41) ㄱ. 아버지 죽은 나흘 후에 약을 구한다.

ㄴ.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 똥이고, 죽으면 만 냥이다.

ㄷ. 어버이 살아 신 제 효도이랑 다하여라.

ㄹ. 어머니 아버지한테 눈 흘기면 저승 가서 대꼬챙이로 눈 찢어서 켜다.⁶⁴⁾

<중국 속담>

64) 부모의 은공을 모르면 반드시 죄를 받게 된다는 뜻.

(42) ㄱ. 栽不活的花, 哭不活的媽。

(재배해도 살 수 없는 꽃, 울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어미다.)

ㄴ.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으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ㄷ. 天天到寺院磕頭, 不如時時敬雙親。

(날마다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못하다.)

ㄹ. 在生不孝, 死了哭廟。

(살아 계실 때 효도 안 하고, 돌아가실 때 절에 가서 운다.)

ㅁ. 水有源, 樹有根, 不認爹娘是畜牲。

(물도 발원지가 있고, 나무도 뿌리가 있듯이, 사람이 부모를 모르면 짐승이다.)

위의 양국 속담 모두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싶을 때, 부모가 기다리지 않으므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효도하라는 훈계가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벌을 받는다고 하였고, 중국에서는 짐승이라는 비유로 표현하여 경멸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보아 다 자식으로서 효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2.3. 계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

재혼 가족 내의 계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추가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계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치 않다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문제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관계이다. 정현숙 외(2000)에서는 “일반적으로 계모인 경우 계부모로서의 역할 적응이 어려워

다른 가족 구조의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 불만, 우울증, 분노를 많이 경험하며 역할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 그리고 의붓자식의 입장에서는 생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 실망을 계모 탓으로 돌리는 점과 계모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계모와 의붓자식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계부모와 의붓자식에 대한 속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 (43) ㄱ. 어미가 남의 어미면, 아비도 남의 아비가 된다.⁶⁵⁾
 ㄴ. 어미가 의붓어미면, 아비도 의붓아비 된다.
 ㄷ. 어미가 바뀌면 아비도 바뀐다.
 ㄹ. 의붓어미가 티내는 것이 아니라, 의붓자식이 티를 낸다.⁶⁶⁾
 ㄹ. 의붓자식 키우느니 개를 키우겠다.⁶⁷⁾
 ㅂ. 의붓자식 옷 해 입힌 셈만 친다.⁶⁸⁾
 ㅅ. 의붓아들은 선떡 주고, 친아들은 익은 떡 준다.
 ㅇ. 의붓아들은 콩죽 먹이고, 친아들은 팔죽 먹인다.⁶⁹⁾
 ㅈ. 의붓아들 창자 낸다.⁷⁰⁾

<중국 속담>

- (44) ㄱ. 娶了後娘有後爹。
 (의붓어머니가 있으면, 의붓아버지도 있다.)
 ㄴ. 剩飯難嘗，後娘難當。
 (남은 밥은 먹기에 좋지 않고, 계모 노릇은 하기 어렵다.)
 ㄷ. 前娘添飯滿桌桌，後娘添飯四角空。

65) 어미가 계모면 친아버지도 마치 의붓아버지처럼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6) 계모가 계모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처소생이 계모를 구박한다는 뜻.

67) 의붓자식은 아무리 정성들여 키워도 배운망덕하기 일쑤라는 뜻.

68) 다른 곳에 쓴 것이나 손해 본 돈을 의붓자식 옷 해준 셈 쳐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뜻.

69) 의붓아들보다 친아들을 편애하게 마련이라는 뜻.

70) 의붓아들을 매우 학대한다는 뜻.

(친어머니는 밥그릇을 가득 채우고, 의붓어머니는 밑바닥만 채운다.)
ㄹ. 親娘切肉片片厚, 後娘切肉風吹走。

(친어머니는 고기를 두껍게 썰고, 의붓어머니가 썬 고기는 바람에 날아간다.)

ㄱ. 後娘的孩子是鐵鑄的。

(의붓어머니 손 밑에 큰 아이는 쇠로 만든 것 같다.)

ㄴ. 後娘心, 蛇蠍狠。

(의붓어머니의 마음씨는 뱀이나 전갈과 같다.)

ㄷ. 後娘後娘, 心狠如狼。

(의붓어머니의 마음씨는 늑대와 같다.)

ㄹ. 午後的日頭, 後娘的舌頭

(오후의 햇볕, 의붓어머니의 혀.)

ㅈ. 冬天的風, 後娘的心。

(겨울의 바람, 의붓어머니의 마음.)

ㅊ. 雲裏的日頭, 洞裏的風, 蠍子的尾巴, 後娘的心。

(구름 속에 있는 해, 동굴 속에 부는 바람, 전갈의 꼬리, 의붓어머니의 마음.)

ㅋ. 日晴不是好晴, 晚娘沒有好心。

(날이 맑아도 좋게 맑은 것이 아니며, 의붓어머니는 좋은 마음씨가 없다.)

ㄷ. 晚娘的拳頭, 雲裏的日頭。

(의붓어머니의 주먹, 구름 속에 있는 해.)

ㅌ. 人怕癆, 地怕荒, 沒奶的娃娃怕後娘。

(사람은 질병을 무서워하고, 땅은 황폐한 것이 못 쓰고, 할머니가 없는 아이는 의붓어머니를 무서워한다.)

ㅎ. 後娘打孩子, 終久饒不了。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때린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상의 속담들을 통해서 계부모와 의붓자식 간에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전통적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핏줄을 잇는다는 것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핏줄이 아닌 의붓자식에 대한 사랑이 친자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됨으로써 위와 같은 속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 속담 (43ㄷ)과 중국 속담(44ㄱ)은 자식 입장에서 친부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다 재혼으로 인해서 들어온 계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계부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온 계부모를 구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의붓어미가 티내는 것이 아니라, 의붓자식이 티를 낸다.”는 속담과 “剩飯難嘗, 後娘難當。”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계부모 입장에서 의붓자식은 자기한테 성질을 부리며, 구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구박까지 당하면 더 더욱 잘해주고 싶지 않을 것이며, 의붓자식은 아무리 정성들여 키워도 배은망덕하기 일쑤라고 생각하므로 계부모가 의붓자식을 구박하기 마련이다. 한국 속담 (43ㄴ~ㄷ)과 중국 속담 (44ㄷ~ㄹ)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박과 학대를 당했으나, 계부모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양국 모두 계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는 서로 상대에 대해 증오하는 감정이 강하여 갈등이 늘 존재하는 것으로 속담 속에서 나타난다.

3.2.4.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입양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⁷¹⁾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과 중국은 대를 매우 중시하며, 대를 이으려고 무척 노력한다. 친자식이 없을 경우, 입양은 그 대를 잇는 방법이니, 친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입양을 택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비록 혈연적 친자 관계가 아니지만, 자신의 대를 잇고 집안

71) 류현(2009:8)에서는 한국 민법 제878조에는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을 이끌어가며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므로 양부모는 양자녀에게 대부분 잘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속담 속에서도 미움과 대립이 아닌 긍정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담고 있다.

<한국 속담>

- (45) ㄱ. 낳은 공보다 기른 공이 더 크다.
 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우선이다.
 ㄷ.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ㄹ.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있다.
 ㅁ. 낳은 정 기른 정 다 들었다.

<중국 속담>

- (46) ㄱ. 親生父母恩如山, 養身父母大似天。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
 ㄴ. 生身父母小, 養身父母大。
 (낳은 부모는 작고 기른 부모는 크다.)

위의 속담들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감정이 긍정적인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한국 속담에서 “양자는 남이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 것이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친자식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대를 잇는 존재로 여기며, “낳은 정 기른 정 다 들었다.”라는 속담을 통해 양부모의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자녀도 친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었지만 키워주는 부모의 도리를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양부모한테 더 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 속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3. 고부 관계

이정숙(2009)에서는 “고부 관계란 결혼에 의하여 시작되는 가족 내 인간관계로서 기존 세대로서의 ‘고’, 즉 시어머니와 혼입 세대로서의 ‘부’, 즉 며느리와 의 새로운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부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끼리 한 남성을 매개로 하여 법률로써 인위적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가장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고부 관계는 가족 내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관계이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안살림을 함께 맡아서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부계직계가족⁷²⁾이다. 부계가족에서는 가부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부자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졌으며 서열의식이 투철하다. 부계가족에서 여성은 매우 낮은 지위에 있게 되고, 특히 혼인한 며느리는 최하위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고 순종 성, 노동의 공헌정도, 가계를 계승할 아들의 출산여부에 따라 성취 지위가 주어진다. 특히 며느리의 지위는 아들의 출산 여부에 크게 좌우되므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특수한 모자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아들은 어머니의 시집살이의 고충을 견디게 하는 심리적 위안이 되고 다른 가족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줄 장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존재가 마치 자신과 아들간의 애정의 줄을 끊어 놓을 휘방꾼 역할을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자신이 고생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가족 내에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쉽다. 따라서 고부 관계는 처음부터 원천적인 갈등과 잠재적인 경쟁적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관한 속담을 시어머니의 입장, 며느리 입장으로 세분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 대해 갖게 되는 시어머니의 정서(情緒)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해 갖게 되는 며느

72)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09:201)에서는 부계직계가족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여 서술한 것이다.

리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속담들을 모아 각각의 항목에 따라 속담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3.3.1. 시어머니의 입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었다. 결혼을 하고 시가에 들어와 시집살이의 온갖 고통을 견디며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맞게 되면 어머니에게 주었던 아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어머니는 그 애정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경쟁자로 보게 된다. 이것이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증오, 그리고 복수로 대치되어 며느리에 대해서 공격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게 되며, 며느리가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밍게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속담>

- (47) ㄱ. 며느리 예뻐하는 시어머니 없다.
 ㄴ.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없다.
 ㄷ. 며느리 자랑하는 시어머니 없다.
 ㄹ.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

<중국 속담>

- (48) ㄱ. 十對婆媳九不和。
 (열 고부 가운데 아홉은 불화한다.)
 ㄴ. 婆婆打媳天下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는 일은 어디든 다 있다.)
 ㄷ. 婆婆多了, 媳婦難當。
 (시어머니가 많아 며느리 노릇하기 더 힘들다.)

ㄷ. 一個婆婆嘴歪, 個個婆婆嘴歪。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다른 시어머니도 따라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위의 속담들을 통해서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고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속담 (47ㄱ~ㄴ)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단순히 며느리라서 싫어한다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속담이고, (47ㄷ)은 시어머니가 고양이가 덕분에 쥐가 없다는 것은 알아도, 며느리 덕분에 편히 쉬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싫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편, 중국 속담(48ㄱ)은 고부간의 사이가 보통 좋지 않는 것을, (48ㄴ)은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8ㄷ)과 (48ㄹ)은 시어머니가 많으면 며느리가 더 힘들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⁷³⁾라는 사회적 배경하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이유나 구체적으로 구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들도 많은데, 중국 속담 가운데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속담이 없다는 것은 양국의 고부 관계를 반영하는 속담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가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밍게 보인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밍게만 볼 뿐이라는 내용이다.

(49) ㄱ. 예쁘지 않는 며느리가 샷갓 쓰고 으스름달밤에 나선다.

ㄴ. 며느리가 미우면 웃는 것도 밍다.

73)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는 봉건사회에서 한 남편에게 동시에 여러 아내가 있는 것을 정당화 하는 제도다. 고대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계속 존재해왔으며, 1912년,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 “일부일처”라는 제도를 제시하였지만, 역사적인 각종 원인으로 인해, 1950년5월1일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이 나올 때까지 일부다처제가 존재하였다. <http://www.docin.com/p-8868457.html>에서 재인용.

- ㄷ. 며느리가 음식 맛보는 것도 주전부리라 한다.
- ㄹ. 시어미 부를 노래 며느리 먼저 부른다.
- ㅁ. 곱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다.
- ㅂ. 못난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둘째,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며느리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 손자에게까지 미움이 확대된다. 이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다른 대상으로 투사되어서 증오가 확대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 (50) ㄱ. 며느리가 미우면 방 앞의 신발짝도 보기가 싫다.
- ㄴ. 며느리가 미우면 옷는 것도 밍다.
- ㄷ. 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단다.
- ㄹ.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 ㅁ.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밍다.

셋째, 딸과 며느리를 차별해서 대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아선호의 입장에서 딸은 부모에게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같은 여자이지만 며느리를 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핏줄이 아닌 며느리와 비교할 때 딸에 대한 애정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반영하는 속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1) ㄱ. 딸의 시앗은 바늘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시앗은 꽃방석에 앉힌다.
- ㄴ. 며느리 아이 낳는 건 봐도 딸 애 낳는 건 못 본다.
- ㄷ. 딸은 눈 오는 날 보내고, 며느리는 눈 온 이튿날 보낸다.
- ㄹ. 딸은 무밭 매이고, 며느리는 감자밭 매인다.
- ㅁ. 딸은 저녁놀에 김매러 보내고, 며느리는 아침놀에 김매러 보낸다.
- ㅂ. 딸은 저녁 무지개에 보내고, 며느리는 아침 무지개에 보낸다.
- ㅅ. 봄별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별은 딸을 쬐인다.

○.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

한국 속담 (51ㄱ)에서 아들의 첩을 보아서라도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은 시어머니의 심정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증오가 극치에 이른다.

넷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미움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한 집안을 지탱하는 중심축이기도 하다. 전통 사회에서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준비하며 시부모 봉양은 물론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집안일을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처럼 며느리를 가사와 대를 이어주는 존재로 인식하며, 인정을 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도 있다. 이는 자신 역시 며느리라는 위치를 겪으면서 받았던 설움과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연민과 감사함이 나타나있다.

(52)ㄱ. 며느리는 여럿이라야 귀여운 며느리가 있다.

ㄴ. 며느리는 반자식이다.

ㄷ. 며느리는 종신 식구다.

속담 (52ㄱ)에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조건 밉게만 보는데, 여럿을 두게 되면 그 중에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2ㄴ)에서는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 생각하게 되며, (52ㄷ)에서는 드디어 식구로 인정하게 된다는 이상의 속담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에서는 위의 (52) 같은 속담은 없지만, “婆媳親, 天下和.”⁷⁴⁾ 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고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서로 노력하고 좋게 지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들이 있다.

(53)ㄱ. 若要好, 大做小。

(화목하게 살고 싶으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ㄴ. 婆婆惜兒媳, 吃穿項項有。

74) 고부 관계가 좋으면, 친하태평이라는 뜻.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두 풍요롭다.)

ㄷ. 婆婆嘴碎, 媳婦耳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많으면, 며느리의 귀가 어둡다.)

ㄹ. 婆要好, 鞋做到。⁷⁵⁾

(시어머니에게 예뻐를 받고 싶으면, 신발을 해주어야 한다.)

ㄱ. 婆婆有德媳婦賢。

(시어머니가 현명하면, 며느리도 현명하다.)

ㄴ. 婆婆做下樣, 媳婦緊跟上。

(시어머니가 모범을 보이면, 며느리가 따라 하기 마련이다.)

속담 (53ㄱ)과 (53ㄴ)은 시어머니의 노력, (53ㄷ)과 (53ㄹ)은 며느리의 노력, (53ㄱ)과 (53ㄴ)은 서로 같이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부 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심하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자는 마음이 담겨 있다.

3.3.2. 며느리의 입장

며느리에게 시댁 식구들은 상대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존재들이다. 특히 같은 여자이며 자신에게는 남편이자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라는 존재를 두고 맺어진 고부 관계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도 역시 가정사에서 큰 골칫거리였다. 부엌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며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는 관계이지만 시어머니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에 며느리는 인내심을 가져야만 했다. 게다가 아들을 낳아서 길러준 시어머니의 존재는 며느리보다 상위의 위치를 갖기 때문에 더더욱 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며느리가 느끼는 시어머니의 존재감은 주로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시어머니를 모시는 방법, 시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인내, 그리고 시집살이의 악순환에 관한 속담들을 통해서 보기로 한다.

첫째,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나타낸 속담들이다. 앞에서 시어

75) 옛날에 중국에서는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신발을 만들어 드린 것이 풍속이다.

머니의 입장에서는 고부 관계를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다.”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들이 또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속담>

- (54) ㄱ. 시어미와 며느리는 사이가 좋아도 역시 시어머니와 며느리이다.
ㄴ. 쓰다고 시어머니다.
ㄷ. 시어머니 말만 들어도 쓰다.
ㄹ. 시어머니 심술은 하늘에서 타고 난다.
ㅁ. 시집 열두 번 가봐야 시어미 다른 데 없다.
ㅂ.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어머니다.
ㅅ. 시어머니는 부뚜막에 앉아도 호령한다.
ㅇ. 시어머니 웃음은 두고 봐야 한다.

위의 속담은 모두 시어머니한테서 며느리가 느끼는 부담감을 담고 있는 속담들인데, 특히 속담 (54ㄱ)과 (54ㅇ)을 통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며느리가 느끼는 부담감은 떨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속담들에서도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중국 속담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중국 속담>

- (55) ㄱ. 起晚了得罪公婆, 起早了得罪丈夫。
(늦게 일어나면 시부모의 마음에 안 들고, 일찍 일어나면 남편의 마음에 안 든다.)
ㄴ. 兩姑之間難爲婦。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잘하기 힘들다.)
ㄷ. 媳婦不是婆養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ㄷ. 做一天媳婦坐一天監。

(시집살이 하루는 수감되는 하루와 같다.)

ㄹ. 尿布還未幹，就想當婆婆。

(기저귀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ㅁ. 醜媳婦最怕見公婆。

(못난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시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한국 속담 (54ㄷ)에서 시어머니를 호랑이에 비유한 것과 중국 속담 (55ㄷ)에서 시집 생활을 수감 생활에 비유했음을 봤을 때 양국 모두 시집살이에 느끼는 부담감과 함께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

둘째, 시어머니를 모시는 방법을 담고 있는 속담들이다. 두려워해도, 미워해도, 부담스러워 해도, 남편을 낳은 사람이라서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인내하면서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 속담>

(56) ㄱ. 시집살이 못하면 동네 개가 다 엽신여긴다.

ㄴ.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로 삼 년, 봉사로 삼 년.

ㄷ. 살다 보면 시어머니 죽는 날도 있다.

ㄹ.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방이 내 차지다.

<중국 속담>

(57) ㄱ. 媳婦幹活給婆婆看。

(며느리 일하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ㄴ. 媳婦記住婆婆愛吃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야 한다.)

ㄷ. 婆婆嘴碎, 媳婦耳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많으면, 며느리의 귀가 어둡다.)⁷⁶⁾

ㄹ. 媳婦能忍千般氣, 爲的明朝當婆婆。

(며느리가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되려는 마음에 있다.)

위의 속담들은 인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여자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시집살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내라는 의미가 양국 속담에 모두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마치 시집을 가는 딸에게 친정엄마가 해 줄 수 있는 말로서 참고 견디어내야 한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시집살이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시집살이를 깨끗하게 견뎌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56ㄴ)에서 나온 것처럼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입을 닫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 시어머니가 돌아갈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집안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어야 한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57ㄱ)과 (57ㄴ)처럼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어서 조금이나마 시집 생활의 고단함을 덜어보려고 하는 점이 보인다. 즉 시어머니의 취향을 알아내고 맞추어서 시집살이를 조금이라도 편히 보내 보려는 자구책인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일을 하며, 보여주는 등의 방법이 중국 속담에서 발견된다.

셋째, 시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인내를 담고 있는 속담들이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당하면서 말 한 마디를 못 하고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 화나는 것을 다른 곳에다 화풀이하는 행동이 한국의 속담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76)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못 듣는 척한다는 뜻.

<한국 속담>

- (58) ㄱ. 시어머니에게 역정 내어 개 옆구리 찬다.
 ㄴ. 시어머니 미워서 뚝배기 내부친다.
 ㄷ. 며느리 구박을 보려면 아이 엉덩이 보고도 안다.
 ㄹ. 시어머니 속곳 이가 다 죽겠다.⁷⁷⁾

<중국 속담>

- (59) ㄱ. 媳婦能忍千般氣，爲的明朝當婆婆。
 (며느리가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되려는 마음에 있다.)
 ㄴ. 媳婦要當婆，慢慢往上磨。
 (시어머니가 되려면 단련을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
 ㄷ. 媳婦當婆子，磨道裏老驢子。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길에 있는 늙은 노새와 같다.)
 ㄹ. 十年媳婦熬成婆，三十年小渠流成河。
 (십 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삼십 년의 시냇물은 강이 된다.)
 ㅁ. 多年的路走成河，多年的媳婦熬成婆。
 (길도 오래 되면 강이 되고, 며느리 생활도 오래 하면 시어머니가 된다.)

위의 한국 속담에서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어려운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어 꿈쩍도 못하다가 그 화풀이를 개나 뚝배기에게 하는 (58ㄱ)과 (58ㄴ) 그리고 이가 자신의 서러움을 대신 풀어주기 바란다는 (58

77) 시어머니 옷을 덜 삶아서 이를 죽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

ㄹ)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한국인들의 재치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안으로 삭이고 인내하는 것으로 속담은 보여준다. 중국 며느리들은 인내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 견디면 좋은 날이, 즉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인내를 해야 할 것을 강조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의 속담들이 다. 긴 세월을 걸쳐 인내하며 매우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정작 자신의 서러웠던 세월을 기억 못한 채 며느리에게 더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

(60)ㄱ. 시어머니는 며느리 적 생각을 못한다.

ㄴ. 며느리 자라 시어머니 되니 시어미 티를 더한다.

ㄷ. 사나운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사나운 시어머니 된다.

ㄹ. 어제 며느리가 오늘 시어머니 된다.

ㅁ. 며느리도 참고 견디면 시어머니 된다.

ㅂ. 며느리 늙어 시어머니 된다.

<중국 속담>

(61)ㄱ. 醜媳婦熬成婆。

(추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된다.)

ㄴ. 不做阿婆怨阿婆, 做了阿婆賽閻羅。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시어머니가 되면 염라 대왕보다 더한다.)

양국 공통적으로 시어머니가 된 후에는 자기가 받았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며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신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하게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과거에 힘든 가사를 하며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냈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며느리에게 더욱 심하게 군다는 것이다.

자신이 힘든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게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쌓이고 쌓였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내재된 울분을 며느리에게 풀게 된다. 그러므로 고부간의 갈등은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일종의 악순환이 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3.4. 기타 가족 관계

기타 가족 관계에서는 한·중 속담에서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외의 가족에 대한 것으로 양국 속담에서 나타나는 가족 상호 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누이, 동서, 사위와 장모로 세분하여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속담이 지니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이를 양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대조, 검토하여 양국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3.4.1. 형제자매에 관한 속담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외하면 제일 중요한 혈연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태생적 원천이 같고, 독립적 생활을 하기 전까지 유사한 환경에서 살며,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가족 내에서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갈등 해소를 통해 인격 형성이 가능했고, 형제자매 관계는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이하에서 형제간 끈끈한 혈육에 관한 속담들을 보도록 하

졌다.

<한국 속담>

- (62) ㄱ. 형제는 양손이다.
 ㄴ. 형제는 손발과 같다.
 ㄷ. 형제는 수족 같고, 처는 의복과 같다.
 ㄹ. 형 보니 아우.⁷⁸⁾

<중국 속담>

- (63) ㄱ. 兄弟如手足。
 (형제는 수족과 같다.)
 ㄴ. 兄弟親骨肉，姐妹連肝膽。⁷⁹⁾
 (형제는 살과 뼈，자매는 간과 쓸개.)
 ㄷ. 兄弟兩人吵了架，還是一個藤上瓜。
 (형제지간에 싸워도 같은 핏줄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
 ㄹ. 兄弟手足情，夫妻衣服情。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인은 의복과 같다.)
 ㅁ. 衣服破，尚可補，手足斷，安可續。
 (의복이 터지면 꿰맬 수 있지만, 수족은 잘라내면 다시 붙일 수 없다.)
 ㅂ. 哥哥咋走，弟弟咋扭。
 (형이 걷는 대로 동생이 따라 하기 마련이다.)

한국 속담 (62 ㄱ~ㄷ)과 중국 속담 (63 ㄱ~ㅁ)에서 형제는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중국 속담 (63 ㅁ)은 형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78) 형을 보면 아우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는 뜻.

79) 매우 가까운 혈육이라는 뜻.

형제자매는 태생적 원천이 같고, 독립적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유사한 환경에서 살며,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한국 속담 (62ㄷ)과 중국 속담 (63ㄴ)은 서로의 영향으로 형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형제 사이라고 해서 좋은 관계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로 질투도 하고, 비교도 하게 되는데, 양국의 속담은 형제 사이가 좋으면 수족과 같지만, 좋지 않으면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 속담>

(64)ㄱ. 아버지는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형은 아우가 더 낫다면 노한다.

- ㄴ. 형만 한 아우 없다.
- ㄷ. 동생 줄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 ㄹ. 동생 죽음은 거름이라.
- ㅁ. 형제는 잘 두면 보배, 못 두면 원수.
- ㅂ. 형제는 남이 되는 시초다.
- ㅅ. 친사돈이 못된 형제보다 낫다.

<중국 속담>

(65)ㄱ. 兄寬弟忍。

(형이 너그러우면 아우는 인내하고 참을 것이다.)

ㄴ. 兄不友則弟不恭。

(형은 다정하지 않으면 아우는 형을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ㄷ. 父在哥當尾，父死哥當頭。⁸⁰⁾

(아버지가 있을 때 형은 꼬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 형은 머리.)

80)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형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동생이 형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뜻.

ㄷ. 兄弟相害, 不如友生。

(형제간 서로 해를 끼치면 친구나 남보다 못한다.)

ㄹ. 弟兄一條心, 天下就太平。

(형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천하태평이다.)

ㅂ. 兄弟睦, 居家富。

(형제 관계가 좋으면 집안이 부유할 것이다.)

ㅅ. 兄弟拉一把, 又有驢子又有馬。

(형제간에 서로 도와주면 노새도 말도 다 있을 것이다.)

ㅇ. 兄弟不睦家業敗。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ㅈ. 兄弟不和, 受人欺訛。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남한테 사기를 당하기 마련이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점이 양국은 똑같지만, 한국 속담에서는 형제간의 질투심을 강조하였으며, 형제의 불화는 원수라고 하였다. 또 한국 속담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는 속담을 통해 가까운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면 남과 불화가 있는 때보다 더 사이가 멀어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속담에서는 형제 관계에 있어서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하고, 형도 아우한테 너그럽게 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형제지간의 화목이 집안을 흥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이는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감정의 직접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4.2. 며느리와 시누이에 관한 속담

며느리의 시누이에 대한 감정이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비슷하다는 점이

양국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시집살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서도 많이 받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듯이 역시 시누이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속담>

- (66) ㄱ. 열 시앗이 밭지 않고 한 시누이가 밭다.
 ㄴ. 시누이는 고추보다 맵다.
 ㄷ. 시누이, 올케 춤추는 가운데 올케 못 출까.

<중국 속담>

- (67) ㄱ. 姑子大似婆, 篩子大似籬。
 (시누이가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체가 광주리 행세를 한다.)
 ㄴ. 女兒可以講話, 媳婦總能聽話。
 (딸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며느리는 말을 듣기밖에 못한다.)
 ㄷ. 大姑有嘴, 媳婦無嘴。
 (시누이는 입이 있지만 며느리는 입이 없다)
 ㄹ. 十個小姑九不賢。
 (손아래 시누이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좋지 않다.)
 ㄹ. 姑娘好過媳婦難熬。
 (딸로서 편하지만 며느리로서 세월을 보내기 힘들다.)
 ㅁ. 姑娘不能不嫁。
 (시누이는 반드시 출가를 할 것이다.)
 ㅂ. 小姑出嫁嫂歡喜。
 (시누이 출가하면 며느리가 기뻐한다.)

한국 속담 (66ㄱ)과 (66ㄴ)은 시누이가 무섭고 밭다는 며느리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66ㄱ)에서 가장 미움의 대상이어야 할 첩보다 시누이가 훨씬 밉다는 표현은 시누이가 얼마나 성가신 존재이며 눈엣가시인지 알 수 있다. 시앗인 경우 며느리가 맞상대를 할 수 있지만 시대 식구인 시누이는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6ㄷ)에서는 며느리가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며, 시누이에 대한 반항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속담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밉다고 말하는 표현을 찾기 어렵지만, (67ㄱ~ㄴ)에서는 며느리가 시누이를 꺼려하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시누이를 좋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며느리들이 반항을 하는 대신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67ㄴ)과 (67ㄷ)에서 찾을 수 있다. 시누이는 결국에 시집을 가야할 것이며, 가게 되면 시누이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참는 며느리는 시누이가 시집을 갈 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속담이 생긴 것이다.

양국 속담 모두 공통적으로 시누이 앞에서 움츠러드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누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며느리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3.4.3. 동서 관계에 관한 속담

동서 관계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아니지만, 형제간 화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속담>

(68)ㄱ. 동서 간에 정이 있어야, 형제들도 우애가 좋다.

ㄴ. 동서 싸움이 형제 싸움이 된다.

ㄷ. 동서 모임은 독사 모임이다.

ㄹ. 동서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

ㅁ. 동서 시집살이는 오뉴월에도 서릿발 친다.

ㄴ. 동서 춤추게.⁸¹⁾

<중국 속담>

(69) ㄱ. 妯娌多了是非多。

(동서가 많으면 시비가 많다.)

ㄴ. 妯娌和好家不分。

(동서 간에 사이가 좋으면 분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ㄷ. 妯娌不和家要分。

(동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분가를 할 것이다.)

ㄹ. 兄弟不和妯娌的過。

(형제 불화는 동서의 잘못이다.)

양국 속담에서는 모두 동서지간의 싸움이 형제간의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서 관계에 따라 집안이 조용하고 잘 될 수도 있고, 시끄럽게 되고 불화도 생길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서는 동서의 시집살이가 심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반면에, 중국 속담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속담 (68ㄹ)은 다른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국과 다른 점이다. 이는 한국에서 만며느리가 아래 동서에 대해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적인 면에서 다른 속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속담은 중국 속담보다 많은 비유와 함께 감정의 표출을 자제하지 않지만 중국의 속담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원론적인 표현이 많다.

3.4.4. 사위와 장모에 관한 속담

사위는 며느리처럼 자식의 혼례 관계로 인해 성립된 가족 관계이지만 며느리와는 달리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면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딸

81) 제가 춤을 추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동서에게 권한다는 뜻.

의 시집에서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딸이 시댁에 가면 약자인 며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사위와 장모의 관계는 아내를(딸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관계이므로 장모가 사위를 대접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사위가 예뻐서이기보다는 딸을 위한 것이다.

<한국 속담>

- (70) ㄱ. 사위가 오면 장모는 버선발로 나간다.
 ㄴ.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곱다고 한다.
 ㄷ. 사위 미워하는 장모는 약에 쓸래도 없다.
 ㄹ. 사위도 반자식이라.
 ㄹ. 사위 밥 한 그릇은 동네 사람이 먹고도 남는다.
 ㅂ. 사위는 백 년 손님이라.
 ㅅ. 사위는 고양이.
 ㅇ. 사위는 개자식.
 ㅈ. 사위에게 잘하다가는 집안 망한다.
 ㅊ. 장모 없는 집에는 장가도 가지 말라.

<중국 속담>

- (71) ㄱ. 女婿牙疼, 針灸‘丈母’.
 (사위는 이가 아플 때, 경혈[經穴] ‘장모’에 침구를 뜨면 된다.)
 ㄴ. 女婿是嬌客。
 (사위는 귀한 손님이다.)
 ㄷ. 女婿進門, 雞兒頭疼。⁸²⁾
 (사위가 처갓집의 대문에 들어오면, 닭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ㄹ. 女婿是半子。

82) 사위를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며, 사위가 오면 닭을 잡아서라도 대접하는 입장에 있는 처갓집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위는 반자식이다.)

ㄱ. 女婿有半子之親。

(사위는 반자식처럼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다.)

ㄴ. 女婿不算親生子。

(사위는 친자식이 아니다.)

ㄷ. 女婿漢，真扯淡，全憑閨女兩頭竄。

(사위자식이라는 것은 개자식이며, 딸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존재한다.)

한국 속담 (70ㄱ~ㄴ)과 중국 속담 (71ㄱ~ㄴ) 모두 장모가 사위를 대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담고 있다. 사위가 오면 반가워서 베풀기로 나간 장모, 곰보라도 사위가 곱다고 생각하는 장모,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정도로 사위 밥을 가득하게 채우는 장모, 사위를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며 닭을 잡아서 대접해 주는 장모 등이 속담에 등장한다.

사위에 대한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장모는 사위를 아껴주며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속담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 속담 (71ㄱ)처럼 침을 놓을 때 ‘장모’라는 경혈을 사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사위가 장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국 속담에서 모두 사위가 반자식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모가 진심으로 사위를 예뻐하기보다는 딸을 위해서 잘 대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속담 (70ㄴ)은 사위를 영원한 손님으로 간주하고 있고, (70ㄷ)과 (70ㄹ)은 사위를 고양이와 개에 비유하며,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71ㄴ)처럼 사위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속담이 있으며, (71ㄷ)을 통해서도 사위와 장모 간의 좋은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위가 자신의 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 속담에서 (70ㄷ)처럼 사위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집 재산까지 날릴 수 있다는 뜻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담은 속담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사위에게 지나치게 분에 넘게 잘해주려

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생긴 속담이다.

그리고 (70才)의 속담이 만들어진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딸은 엄마의 교육을 통해 엄마를 닮으므로, 대부분 엄마 없이 자란 여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하기 때문에 장모가 없는 집에 장가를 가면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속담일 수 있고, 혹은 “사위는 장모 사위.”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통 장인보다 장모가 더 잘해주니까 (70才)의 속담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사위를 가장 사랑하고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장모이기 때문에 장모가 없는 집에 장가를 가면 장모가 있는 처가에서 해주는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을 부부에 관한 속담, 부모 자식에 관한 속담, 고부 관계에 관한 속담, 그리고 기타 가족에 관한 속담 등으로 세분하여 대조·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부장권 혼인 질서를 지탱하는 도덕관하에서 남편은 지고무상의 권력을 갖게 되고, 부위처강의 인륜관계하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본 속담 역시 남편의 입장에서 본 아내의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는 아내 스스로가 본인이 여자라는 현실에 대해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지위를 인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부부 관계에 관한 속담은 두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고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밀접한 관계이며,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또한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을 시키고 난 후의 서운함 등으로 세분하여 논의하였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녀로서 효도를 해야 함과 하지 않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부모 자식 관계 역시 양국은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크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고부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며 남편인 한 남자를 중심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며 원천적인 갈등과 잠재적인 경쟁적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고부간의 갈등은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악순환이 되었다.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한국 며느리의 반항심의 외적 표출과 중국의 며느리의 인내심을 강조한 표현이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타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은 그 범위를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누이, 동서, 사위와 장모로 한정하여 각각의 관계를 대조한 결과 양국 속담의 내용과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단지 표현 형식에만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가족에 관한 속담에는 공통점

이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끊임없이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류를 해온 결과라 생각된다. 즉 두 나라는 모두 경제적으로 농경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유교가 생활양식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였으므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내용면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매우 비슷하므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였다. 내용적 면에서 차이점이라면 중국의 가족 간 속담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표현이 매우 많았으나 한국 속담의 경우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속담들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의 속담은 다소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속담은 상징적이며 사물에 비유하여 우회적인 표현이 매우 두드러졌다.

속담이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사용될 때 속담의 서술적 기능보다 상징적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 전달 효과는 훨씬 크다. 이는 직설적 화법을 사용할 경우 상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상징적 기능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또는 우회해서 말함으로써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비해 “봉이 가면 황도 가는 법이란다.”라는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직설적인 화법에 비해 반감을 덜 갖게 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직설적인 화법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상징적 기능의 속담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이 쓰였을 것이다.

가족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단절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과거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의 단절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덮어둘 수만 없는 반드시 풀어야 할 큰 문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에 관한 속담의 사용은, 특히 상징적 기능의 속담의 사용은 가족 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

는 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고도의 상징성을 포함한 비유를 통해 정곡을 찌르는 동시에 웃음을 불러내는 해학성이 한국 속담의 특징이자 중국과는 매우 다른 차이점이었다.

한·중 속담 가운데 표현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가족 관계와는 다르게 차이점을 보여주었던 고부 관계에 관한 속담은 양국 문화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국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들의 지위가 오히려 한국 여성들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영한 속담 역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영원(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연구 : 교사와 학습자의 속담 교육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어국립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기창(1990), 「속담 교육 소고」, 『한국어문 교육』1, 한국어문 연구소.
- 김나영(2008),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 교훈적 속담 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환(1993), 『한국 속담 활용사전』, 한울.
- 김문창(1974), 「국어 관용어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엽(1982), 『속담론』, 대진출판사.
- 김영자(200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2005), 「영·한 속담 비교를 통한 영어 학습 지도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수(2001), 「중국 현대 상용 속담과 그 교육의 활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리나(2008), 「한국과 러시아 속담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익균(2008), 『가족 관계학』, 교육과학사.
- 김종택(1967), 「속담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35, 국어국문학회.
- 김주광(1993), 「한·일 양국 속담에 나타난 여성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만(1986), 「한국 속담의 의미 기능에 관한 고찰」,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영(2010), 「가족 관계에 관한 한·일 속담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로지코바 무니라 (2007), 「한국과 우즈베크의 여성에 관한 속담 비교 연

- 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현(2009), 「공개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와 입양 공개에 대한 태도가 자녀와의 입양 관련 대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홍(2001),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현숙(1992),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석현(1974), 「속담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경원(2009), 『결혼과 가정』, 교육과학사.
- 서정수·정달영(1998), 『세계 속담 대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송재선(1986), 『우리말 속담 큰사전』, 정동출판사.
- 신기철·신용철(1985),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외(1986), 「한국어 관용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 연구』 11, 서울대.
- 양지선(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속담 비교 연구 : 문화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王寶霞(2006), 「여성에 관한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汪夢覺(2007), 「한·중 속담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09), 『가족 관계학』, 교문사.
- 육훈(1996), 「한·중·양국 속담의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훈(2002), 「한·중·일 삼국 속담의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강언 외 3인(2000), 『국어학 전용어 사전』, 태학사.
- 이극(2008), 「한국과 중국의 동물에 관한 속담의 비교 연구 : 상징의미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재(1980), 「속담에 비친 한·미인의 특성」,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1962),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2005), 『속담 사전』, 일조각.

- 이기문(2000), 『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기호(2004), 「한·영 속담 비교를 통한 영어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방실(2007), 「영어 교육에서 속담과 명언의 활용 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 외(1984), 『대국어사전』, 삼영출판사.
- 이을순(1982), 「한·일 양국의 속담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을환(1971), 「韓國俗談의 文法 構造 研究 : 주로 女性 俗談을 資料로 하여」, 亞細亞女性研究 10,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 이정덕 외(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신정도서출판사.
- 이정숙(2009), 『가족 문제』, 교문사.
- 이종철(2003), 『우리 속담 바르고 창의적으로 쓰기』, 이회문화사.
- 이진선(2006),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1998),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 이충섭(1969), 「한국 속담의 감화성에 관한 고찰」, 『釜山教育大學研究報告』. 5-1.
- 장수란(2004), 「한·영 속담의 비교를 통한 문화 이해와 영어 교육」,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숙(1995), 「한·일 속담의 비교 연구: 유사 속담들의 내용과 소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정(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저갈진(2005), 「중국 혈후어 연구-동식물과 관계된 혈후어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흥화(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한국어 속담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현숙(2001), 「韓中 同意異字型 四字成語 比較 研究: 原典型態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2000), 「재혼 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8(4).

- 조병기(2001), 「일·한 속담의 내용과 소재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2006), 『한국의 속담 대사전』, 태학사.
-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 馮驍(2005), 「한·중 여성 속담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선(2008), 「한·중 관용어 비교 연구 : 12생초 관용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학회(1997),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한글학회(1986), 『새 한글 사전』, 서울 홍자출판사.
- 황림화(2006), 「한국어와 조선어 속담의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姜信道(2005), 『韓中諺語慣用語詞典』,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陶陽(1988), 『諺語界說』, 民間文學論壇, 32卷3期.
- 呂叔湘(1997), 『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武占坤, 馬國凡(1998), 『諺語』, 內蒙古人民出版社 .
- 徐廈榮(2009), 「文化語言學視角下的漢, 韓諺語對比研究」,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 孫貞敏(2009), 「關於女性的中韓諺語比較研究」,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 申俊(1990), 『中國熟語大典』, 上海文藝出版社.
- 溫端政, 王樹山, 沈慧雲(1999), 『諺海』上下, 語文出版社.
- 李塔默(1998), 『最新中韓韓中雙用詞典』, 山東友誼出版社.
- 任曉玲(2003), 「韓國“俗談”的文化特性研究 : 以與漢語成語的比較爲中心」, 對外經濟貿易大學碩士學位論文.
- 中國社會科學院研究室編(1977), 『辭海』, 上海人民出版社.
- 夏于全主編(2002), 『四書五經』, (第一卷), 內蒙古出版社.
- 航之(2002), 『中國寓言故事(上)』, 中國少年兒童出版社.

【참고 사이트】

<http://krdic.naver.com>

<http://www.immigration.go.kr>

<http://www.docin.com/p-8868457.html>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87703	과정	석사·박사
성명	한글 손성영 한문 孫成英 영문 SUN CHENGYING				
주 소	광주 동구 지산동 485번지 201호				
연락처	e-mail : scy0629@hanmail.net				
논문제 목	한글 :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				
	영문 : A Contrastive Study on the Proverbs of Family Relationship of Korean and Chinese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여부 : 동의(●) 반대()</p> <p style="text-align: center;">2010 년 12 월</p> <p style="text-align: center;">저작자: 손성영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조선대학교 총장 귀하</p>					